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뤄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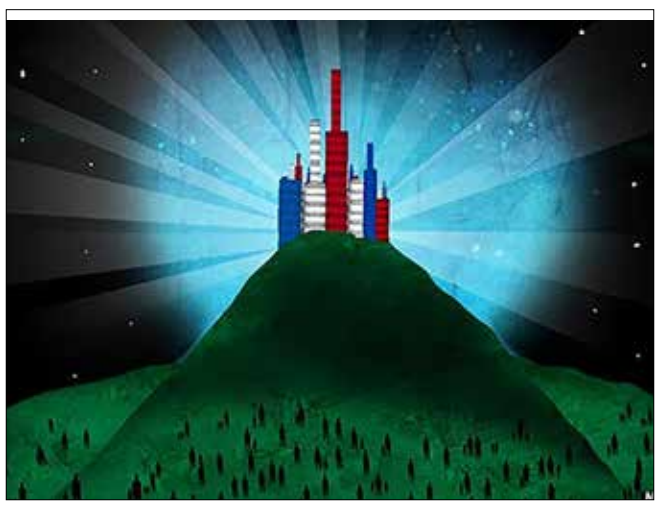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0년 9월 26일 (토) 제 1795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언덕위의 빛나는 도시", 미국!

CT, 존 윈스롭의 "언덕 위의 도시" 설교 배경과 왜곡/오용되고 있다는 사실 지적



미 건국과정에서부터 줄곧 강조된 것은 바로 구세계(유럽)에 대비되는 신세계(아메리카)로서의 자아정체성이었으며, 이것이 미국 예외주의의 역사적 기초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념적 원천이 신세계와 구세계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 왔는지는 여러 이론이 존재하나 청교도주의가 우위였다.

식민지 시대부터 북아메리카에 정주한 유럽계 이민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구적인 전쟁과 압제에 시달리는 구세계에 대항해 새로운 자유와 번영의 공간을 신대륙에 건설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국가적 자아형성이 외부세계와 비교해 강력한 우월의식과 선민의식, 나아가서는 일종의 구원자 국가(redeemer nation)로서 보편주의적 열망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의 예외주의도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차원에서 보면 민족주의의 한 종류이지만, 혈통, 인종, 언어 등 대개 "특수주의적" 자원을 기반으로 민족의 경계선을 구축해가는 일반적 종족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 달리, 미국의 민족주의는 독립선언문과 연방헌법 등에 명기된 소위 미국적 신조(American Creed)에 기초한 시민민족주의(civic nationalism)로서 전인류에 적용가능한 "보편성"을강조한다는 점이다.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예외주의는 1630년 존 윈스롭(John Winthrop)이 성경의 산상수훈(마태복음 5:14)에 나오는 표현을 빌어 아메리카가 전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언덕 위의 도시(city upon a hill)"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이래 한결같이 미국인들의 정체성과 근본적 세계관을 구성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의 정체성과 사명의 원천을 확인하기 위해 청교도의 설교를 찾았다. 존 윈스롭의 설교("A Model of Christian Charity")에서 유명한 문구 인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로 세워질 것입니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특별한 운명을 모델이자 세계의 빛으로 완벽하게 포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를 통해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의 영어 교수인 밴 유진(Abram C. Van Engen)은 이 설교가 오용되고 오해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신간(City on a Hill : A History of American Exceptionalism)에서 "언덕 위의 도시"가 어떻게"기초"국가 텍스트가 되었고, 오늘날 미국사회를 계속 형성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Reagan, Clinton, Bush, and Obama All Cited One Puritan Sermon to Explain America: How did a forgotten colonial text become a national origin story?).

1630년 매사추세츠만의 최초의 청교도 총독인 존 윈스롭은"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문구는 17 세기에 매우 흥미롭고 알려지지 않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히 마태 복음 5:14)에서 나왔으며 1600년대에는 청교도들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가장 사랑했다. 그들은 마태 복음 5:14을 사용하여 개신교가 거짓이고 가톨릭이 참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 시대 이후로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말했다(예수님은"언덕에 세우셨다"). 반대로 개신교도들은 참된 교회를 작거나 숨겨진 것으로 묘사하면서, 누가 복음 12:32와 요한 계시록 12로 넘어갔다.

〈3면으로 계속〉

2020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마지막 날 집회에서 강사 마이클 조 선교사가 설교 후 통성기도를 인도하려 하고 있다.

"신선한 영적 파문이 뉴욕교계 덮기를"

2020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온오프라인 집회 성료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0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가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라는 주제 하에 9월 18일부터 사흘간 온오프라인 집회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렸다. 이로써 40년 역사 중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할렐루야대회가 계속 열린 셈이 됐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개최 여부부터 우려가 많았지만 순조롭게 잘 치러졌으며 이전과 달리 세운 2명의 강사도 열정적으로 집회를 인도했다.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는 집회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수고한 준비위원회에 감사한다며, "이제 신선한 영적 파문이 뉴욕교계를 덮어가기를 기도한다. 여전히 두려움의 안개가 끼어있는 시대지만 소망이 빛이 되길 기도한다. 팬데믹의 파도를 헤쳐 나오게 하신 선장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린다"고 대회 종료 소감을 전했다.

총 3회의 저녁집회와 2회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현장참여는 매일 100여명, 온라인 클릭수 500명을 넘었다.

첫날 집회는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 인도로 프라미스금요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후 회장 양민석 목사의 개회선언 및 대회사, 대표기도 김영식 목사, 성경봉독 손성대 장로(부회장), 특송 프라미스중창단, 강사소개 양민석 목사, 설교와 통성기도 황성주 목사, 헌금특송 현악5중주, 헌금기도 김학진 목사(뉴욕장로교회), 광고 이창종 목사(서기), 축도 허연행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민석 회장은 대회사에서 대회 개최이유를 1)어둠이 짙을수록 영적건축이 더욱 필요하다 2)어둠의 때에 별빛은 더욱 빛날 수 있다 3)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라는 감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성주 목사는 "코로나 시대! 꿈의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라"(사51: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코로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며 의사답게 의학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황 목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상황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뀔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는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하신다. 모든 국가의 취약성을 드러내셨다.

〈3면으로 계속〉

강사 2명 황성주 목사 마이클조 선교사, 열정적 메시지 전해

2면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3면 시 론 김인환 목사

4면 푸른초장 이진희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싱글맘, 싱글대디,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견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323-737-7699, 800-669-0451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추계 부흥성회
"축복의 삶이 되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는 삶!" 마태복음 6:9~13
LIVE www.gracemi.com/온라인예배
일시: 2020. 10. 1(목) ~ 4(주일)
1(목) 7:30pm /2(금) 5:30am,7:30pm
3(토) 6:00am, 7:30pm
4(주일) 7:30am, 9:20am, 11:30am, 2: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강사: 진재혁 목사 (전 지구촌교회 담임/ 현 케냐 선교사)
진재혁 목사
- 풀러신학대학원 (Ph.D.)
- 미국 뉴비전교회 담임
-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 현 케냐 선교사
주일 예배
1부: 7:30am, 2부:9:30am 3부:11:30am, 4부: 2:00pm
EM 예배 : 1부: 9:20am, 2부: 11:30am
일천번제 특별새벽기도회 월~금 5:30am, 토 6:00am
금요성령집회 7:30pm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오전 08:00(주 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오후 12:00, 9:00(주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오후 04:30(화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8:00(화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전역 CH 668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3:3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5:30(금요일)
미주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TV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CGNTV CH 31.9 오후 10:0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6:30(토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4:00(토요일)
JSTV 미국전역 CH 668 오전 04:0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 발행인 칼럼 ●

종교냐 기독교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모든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그 종교심으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그 안에서 안녕(安寧)과 복을 도모(圖謨)한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심에서 출발한 종교의 아류(亞流)가 아니다. 기독교는 일반종교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요소들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배치(背馳)되기 때문이다.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 자체를 아는 일에 힘을 쓰지 않는다. 실상은 존재치도 않는 그들 신의 실체 여부(與否)를 진지하게 알아보려고도 않으니 그 신의 성품을 제대로 알 턱이 없다. 종교는 막연히 자기들의 신을 몹시 무서워하며 신의 비위(脾胃)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서글픈 순종을 한다. 종교는 자기들의 신의 영광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오직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요 기도의 내용이다. 종교는 구원이 자기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처절하게 온갖 노력을 다한다.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심에서 출발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계시의 주체시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기독교는 무서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행하신 위대한 일 때문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한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기독교의 기도는 나의 소원에 집착(執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는 자기가 알아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선물로 받는다. 따라서 타력(他力) 구원으로 인한 감격의 찬송이 멈추어지지 않는다.

이렇듯 종교와 기독교는 출발, 과정,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사람의 종교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다.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형식은 몰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말(一抹)의 유사성도 없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와도 견줄 수 없는 배타적(排他的)이요 독보적(獨步的)인 진리이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이런 배타성과 독보성을 무시하고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종교와 손을 잡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독교 안에서의 다원주의(多元主義)는 원래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를 옹호하고 수용하는 주제넘은 관대함은 전혀 필요도 없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단 말인가(고후6:15). 기독교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종교 중의 한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별성은 선명(鮮明)하다. 그 차별성은 종교적인 사람과 기독교인의 삶으로도 입증되어야 한다. 제한된 영역에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종교생활을 기독교인의 삶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올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안녕히 계셔요. 다음 주일날 또 만나요" 라는 심사(心思)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엄연히 종교인이다. 주일 그리고 교회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드러나야 기독교인이다. 스스로의 삶을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나는 과연 모호한 종교인인가 온전한 기독교인인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

WHO, 9월17일 현재 누적 확진자 3천만 명 넘어선 지구촌 일그러진 일상 보도

최근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24분(그리니치표준시 16일 오후 11시24분 기준)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3천만 명을 넘었다. 이는 지난달 30일 2천5백만 명을 넘은 이후 18일 만이며, 지난달 10일 2천만 명을 넘어선 지 38일, 지난 6월 27일 1천만 명을 넘어선지 82일 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첫 보고 이후 179일 만에 1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1천만 명에서 2천만 명은 44일 만에,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은 38일 만에 각각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확산세는 각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체 집계 결과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30만7,930명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확진사례 7명 중 1명 의료종사자, 4명 중 1명 우울증 불안감
백신 임상시험 부작용 잇달아, 침체된 세계경제회복 5년 예상

게다가 유일한 희망이던 백신마저 최근 임상시험에서 잇달아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신 개발의 선두그룹인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을 보였고 최근 임상시험을 재개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부작용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8일 영국의 임상시험 참가자 한 명에게서 원인 미상의 질환이 발견돼 글로벌 임상시험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잇단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소식에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중도 포기도 속출하고 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은 스페인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 중도 포기를 선언하는 지원자가 나오고 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그 백신 때문에 발생한 일은 우리가 연구하는 백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백신의 위험성을 묻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선거 전에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지난 16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코로나19 백신의 일반적인 보급 시점을 내년 2-3분기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레드필드 국장은 백신보다 마스크 착용이 감염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코로나와 직접 싸우고 있는 의료진의 고충은 누적되고 있다. WHO는 코로나19 확진 사례 가운데 7명 중 1명은 보건 의료 종사자라며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WHO에 보고된 코로나19 사례의 약 14%가 보건 종사자에서 발생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3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수는 대부분 국가의 경우 전체 인구의 3% 미만,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2%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비율이다. 앞서 국제간호협의회도 지난달 중순까지 팬데믹으로 44개국에서 간호사 1000여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 같은 감염 위험뿐 아니라 의료진이 스트레스와 사회적 차별, 폭력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WHO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 종사자 4명 중 1명이 팬데믹 이후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3명 중 1명은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의료진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며 "단지 그들이 환자를 돌보기 때문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의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떤 국가, 병원, 의원도 환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남부지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사설 연구소 20곳이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바이러스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검사량을 대폭 늘리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연구소 직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자 파업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 시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전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광고문의: 347-223-1531 chpress.kjs@gmail.com | 718-886-4400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치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이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언덕위의 빛나는 도시", 미국!

〈1면에서 계속〉

마태 복음 5:14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이 구절을 재해석하여 가톨릭의 손에서 그것을 뜯어 내야만 했다. 보편적 교회가"언덕 위의 도시"가 되는 대신, 윈스롭과 같은 청교도들은"언덕 위의 도시"가 복음의 진정한 빛이 비추는 곳마다 지역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구절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회중, 마을, 도시, 그리고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설명하기 위해 윈스롭의 말을 차용했을 때, 그는 "기독교 자선의 모델"을 미국 문화의 기초 텍스트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마디로, 레이건과 보수주의자들은 냉전 기간 동안 윈스롭의" 언덕 위의 도시"설교를 미국의 가치이자 비전으로 만들었고, 냉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더욱 더 흥미로운 사실은 윈스 롭의"언덕 "언덕 위의 도시"라는 문구를 미국 국가 이야기의 창시 텍스트로 사용하게 된 사실이다. 사실상, 윈스롭의 "언덕 위의 도시 론"은 19세기 중반까지도 출판되지 않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출간된 후에도 별다른 반향이 없었던 논의였다.

아니러니하게도,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무신론자인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미국을 소련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청교도 원리에서 타락한 미국 사회를 고발하는 미 건국의 정전(Canon)으로 격상 시켰다. 그리고 밀러가 죽기 불과 몇 년 전,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케네디(John F. Kennedy)는 연설에서, "언덕 위의 도시" 설교를 사용한 최초의 대통령이되었다. 그리고 레이건이 이 문구를 다시 집어 들었을 때, "언덕위의 빛나는 도시"는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더 큰 원천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미국이 다른 모든 국가에서 선택되었으며 인류 역사에서 특별한 목적을 부여 받았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델이되어야 한다. 그러한 견해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원 이야기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순례자들이 건국 이념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 예외주의"와는 "언덕위의 도시"개념이 태생적으로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의 역사대신 이데올로기만을 제공한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우선주의"자들은 말하는 " 위대함"은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로 주권, 권력, 부에 관한 것이다. 그럼으로 '아메리카 퍼스트'의 위험은 잘못된 국가 선거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도덕적 선 즉 영적 가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390년 전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존 윈스롭(John Winthrop)'은 신대륙으로 떠나는 아라벨라호의 갑판에서 '저 건너 새로운 언덕 위에 세상이 우러러보는 빛나는 도시'를 세우자고 설교했다. 미국의 자긍심과 세계에 대한 특별한 소명을 뜻하는 이 구절이 또 한번 빛을 발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신선한 영적 파문이 뉴욕교계 덮기를"

〈1면에서 계속〉

4차 산업이 한방에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하지 말고 찬양하라(합1:3).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목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 본질로 돌아가서 제자훈련 시키고 가정교회로 침투하고 모든 성도를 만인 선교사로 흩어서 계시록의 킹덤드림을 실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꿈의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서 구원의 역사에 동행하라. 이제 부흥은 개 교회 모임의 증가가 아니라 선교사 파송이다. 생계 문제는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역동성에 삶을 던지라"고 역설했다.

둘째 날은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원보이스워십의 경배와 찬양 후 소리엘 지명현 목사의 영상찬양, 대표기도 정순원 목사, 특송 소프라노 박진원 집사, 강사소개 양민석 목사, 설교와 통성기도 마이클 조 선교사, 헌금특송 유요선 집사, 헌금기도 조원태 목사, 광고 정대영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마이클 조선교사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서"(삿2: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사기에 들어오며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 신앙의 전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녀에게 진정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한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를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손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다음세대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첫날 강사 황성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 2020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선포했다.

조 선교사는 장애인 부모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난의 삶을 살았으며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에 가며 예수님을 버렸다. 그러나 군대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간증했다.

제대 후 돌아간 학교에서도 전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방을 놓고 기도하라"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영어공부를 하게 됐으며 인기 영어강사가 되고 세상에서 한창 잘나가던 31세에 선교사로 인도하셨고 "주님, 꽃은 가장 아름다울 때 꺾여야 할 줄 믿는다"라는 고백과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현재 풀타임 선교사 70명, 파타임까지 150명이 IM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2017년부터 한국 차세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지역교회를 돕는 선교회를 지향했다. 3년반 동안 약 24개의 국제학교를 세웠으며 70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다음세대살리기운동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을 지역교회 선교사로 파송(?)한다. 많은 열매를 맺으니 한동대, 그리고 성결교단과 백석대신 교단에서도 수련회를 맡길 정도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시 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오순절 날의 성령의 강림사건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랜 구속역사를 통해서 배태시켜 오신 하나님의 교회가 드디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다. 이때 탄생한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단 하나의 교회였다. 그 이후 전 세계 각 지역에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결과로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각 지역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교회의 지 교회일 뿐이다. 민족, 지역, 언어, 문화, 신앙고백의 표현, 성례, 교회 정치제도의 차이 등등에 따라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많은 다양한 교단을 형성하였다. 시각적으로 볼 때 많은 교회와 교단이 존재하므로 마치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교회와 교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며 그 모든 교회는 그 하나 밖에 없는 교회의 가지일 뿐이다. 따라서 성경은 한결같이 시각적(visible)으로 뿐만 아니라 역동적(dynamic)으로 모든 지 교회의 하나 됨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이 하나 됨을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며.....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양성을 이루었지만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지도 못하고 성숙한 교회는 더 더욱 이루지 못한 나머지 세상의 조소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의 교회역사는 이러한 현상의 고저를 반복한 역사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공존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

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교회 내에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욕되게 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기독교의 믿음은 각 개인의 구도나 고행이나 인간의 깊은 사색 혹은 성찰, 지적 활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각 성도들에게 주신 주권적 은총의 선물이다. 그 믿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구성된다. 이 세 요소가 균형 있게 잘 어울리게 될 때 그 믿음은 가장 올바르고도 건전하며 강한 믿음이 된다. 이 믿음의 시작과 성장에는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개입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심과 아울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나 성령이 각 개인에게 획일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므로, 성도들의 믿음과 성경지식은 각각 차등이 있게 되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믿음의 지식이 많은 자와 적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 믿음을 일상생활과 특별한 사안에 적용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생활 방식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교회 내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여기에다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방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탄이 교묘하고도 격렬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다. 이로 인해 교단과 교단이, 교회와 교회가, 신학자와 신학자가,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교회내의 직분자들과 직분자들이, 일반 교인들과 교인들이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며 갈등하고 서로 싸우면서 교회의 기본적 모습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오랜 교회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큰 숙제이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고 미국교회가 그렇다. 양국이 민감한 대선을 앞에 두고 있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적 문제에까지 개입되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멋진 해결책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모두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우리들은 다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해결책을 깊이 곰씹으면서 이를 실천하여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두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스럽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자.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대면과 비대면 예배

코로나로 인해 전통적 교회 예배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가 태동된지 5백여 년 동안 환난 중에도 굳건하게 지켜오던 대면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게 되었다.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정부의 지시 때문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의 형태이기에 목회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일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 칼뱅은 가장 모범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보았다. 성령의 강림으로 태동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다(행2, 42, 46). 그런 예배야말로 신약교회의 전범이 될 수 있다. 이 모습을 모범적으로 본받은 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가 아닌가 한다. 그런 결과 작은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국가가 되었다.

성령의 강림으로 태동된 교회는 철저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 예배는 성령의 능력이 다양하게 일어났고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대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예배는 일시적이어야 한다. 오래가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수고롭게 삼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 거기서 드리도록 명령하셨다. 철저하게 대면 예배를 명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셨다.

이 시대 우리역시 그 믿음을 지니게 될 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에 대표적인 교회를 다니는 안수집사가 전화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너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이 예배로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 신앙은 더욱 견고해짐을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고로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단결하여 정부에 대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대신 개 교회별로 방역을 철저히 하여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모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전혀 감염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혹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비대면 예배가 오래 지속된다면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 참혹한 전쟁 중에서도, 카타콤베에서도 지켜온 생명 같은 대면 예배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런히 대면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열심 있는 성도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다. 고로 대면 예배는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들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다. 양들의 생명을 책임진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locielo88@naver.com

푸/른/초/장

이진희 목사
(웨이코교회, TX)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는 인생

시편 128편

캔사스에서 LA를 가다 보면 처음에는 끝없는 평원이 펼쳐진다. 그렇게 한 10시간을 가면 콜로라도의 록키산맥이 나타난다. 그때부터는 계속 산을 넘어가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 그러다가 콜로라도를 다 지나갈 때쯤 되면 점점 사막으로 바뀐다. 그리고 유타 주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사막이 시작된다. 가도 가도 사막이다. 암갈색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점차 푸른색들이 나타난다. LA에 다 와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 캔사스의 평원을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콜로라도의 험한 산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유타 주나 네바다 주의 황량한 암갈색 광야를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 초원에 있어도 언제 인생의 산을 넘어가게 될지 모르고 지금 가나안에 있어도 언제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

1. 인생은 산 넘어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로 시작하는 시편 121편은 유월절 같은 절기에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다. 그러나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라기보다는 사실은 기도였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미터에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예루살렘은 800미터 산꼭대기에 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은 대관령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 여리고는 강릉 앞바다에서 300미터 더 바다 속으로 내려가야 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25마일 정도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다. 1200미터 되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순례자들이 아침 일찍 여리고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길을 떠난다. 앞을 보니 첩첩산중이다. 저 산을 어떻게 다 올라간단 말인가? 무사하게 저 산들을 다 넘어가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걱정을 하게 된다.

우리말에 걱정이 태산 같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야 할 어떤 대상,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떤 장애물을 뜻한다. 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 이 산만 넘어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산을 넘어 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산을 넘어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 앞에 넘어야 할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 광야를 지나는 인생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자마자 광야가 펼쳐진다. 광야 한 가운데 산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다. 여리고도 광야에 있다. 유대광야 한가운데 있다. 여리고는 오아시스이다. 광야인데 샘이 있어서 지금부터 1만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고 살았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지역은 다 광야이다. 쉴만한 나무 한 그루 없다. 동네 하나 없다. 샘 하나 없다. 완전히 다 광야다. 그런 광야를 하루 종일 지나가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고가실 때마다 바로 이 험한 길을 지나셔야 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했는데 순례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산보다도 황량한 광야였다. 사실은 "내가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탄식했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산에 비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가나안)은 절반 이상이 광야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젖과 꿀만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

우리는 풍요의 가나안에서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광야 길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광야에서보다 더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 광야에서보다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한다. 광야에서보다 더 지쳐있다. 광야에서보다 더 외롭게 살아간다. 우리는 다 광야를 지나는 인생들이다. 지금도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에스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갔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스7:9).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네 달 걸려서 갔다고 했다. 그러나 그냥 4달 걸려서 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갔다고 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가 온 길-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은 다 사막이다. 사막을 네 달이나 걸려서 건너온 것이다. 산 넘고 물 건너 온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온 것이다. 사막에는 사방에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사막을 네 달이나 지나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아니면 네 달 동안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광활한 "불뱀이 우글거리는 건조한" 사막을 지나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

에스라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왔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질병의 광야, 고독의 광야, 실패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버림받음의 광야, 잊혀짐의 광야, 가난의 광야, 실직의 광야, 이혼의 광야, 사별의 광야 등등 그 어떤 광야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이다.

3,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는 인생

젊은이들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갔다. 목표를 이루었다. 정상을 정복한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참고 견뎌야 한다. 가슴 속에 사표 한 장씩 품고 다니는 것이 직장 생활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결혼을 했다. 산을 정복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혼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목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국에 어렵게 어렵게 왔다. 목표를 이룬 것이다. 산을 정복한 것이다. 미국에 오기만 하면 주말마다 백야드에서 파티를 할 줄 알았다. 미국이 가나안인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다. 한국에서 보다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험산준령을 넘어야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나무 한 그루 샘 하나 없는 뜨거운 광야를 지나야 한다. 걱정이 태산 같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들은 기도한다. "하나님 이 산을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산을 무사히 넘어가고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생은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는 것이다. 산도 넘고 광야도 지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답이 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건너지 못할 광야가 어디 있겠고 넘어가지 못한 산이 어디 있겠는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광야를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jinhlee1004@yahoo.com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

〈2면에서 계속〉

한편 코로나 쇼크로 침체된 세계 경제는 회복하기까지 5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은행(WB)의 카르멘 라인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봉쇄령과 연계된 모든 규제 조치가 풀리면 빠른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완전한 (경제) 회복까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인하트는 일부 국가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불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며 빈곤층이나 가난한 나라가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더 큰 타격을 입으면서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빈곤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신선한 영적 파문이 ...

〈3면에서 계속〉

2018년에는 미국에 있는 다음세대를 일으키라는 도전을 주셔서 LA와 뉴저지에 지부를 세웠다.

조 선교사는 셋째 날 "코로나 성도"(창50:25-2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도 간증을 이어갔다.

잘 나가던 스타 학원 강사이던 3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선교에 헌신하고 한국에서 비행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은 5년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빈민촌 쓰레기 마을로 인도하셨다. 아내와 4명의 아이들과 필리핀에 가서 쓰레기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며 현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 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간증했다.

하나님께서 2016년 미전도 종족이 있다며 한국으로 다시 부르시고 한국에서 차세대 사역을 시작했으며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찐' 선교사가 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미국을 향해 기도하는 가운데 대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며 "뉴욕은 전 세계의 중심이다. 뉴욕의 2세들은 부모를 따라 바벨론에 온 다니엘 세대다. 2세들을 잘 양육시키고,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뉴욕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셋째 날 집회는 부회장 문석호 목사 인도로 뉴욕그레잇넥 교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과 Paul Baloche 목사의 찬양 영상, 대표기도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장), 성경봉독 김재관 장로(뉴욕장로성가단장), 특송 최명자 사모, 설교와 통성기도 마이클 조 선교사, 헌금찬무 에스더김, 헌금기도 임영건 목사, 광고 문정웅 목사(서기), 회장 인사 및 감사패 전달, 축도 한재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의 집착과 행복

- Simple Life, High Spirituality

의미 있는 삶, 행복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며 복을 누리는 것일까? 그렇다면 남의 장기를 밀매해서라도 무조건 오래 살면 축복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이구동성 답을 한다. 일백년을 살든 천년을 살든,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므두셀라와 같은 자라도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삶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어린 아기의 생명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안타깝지만 원하는 만큼 장수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나라에 가는 것이라면 너무 오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 생명부터도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인생에 사용권과 관리권만 있을 따름이다. 원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 받는 것만이 아름답다. 단순한 생명연장을 위한 삶은 참 성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사실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 듯 모를 듯하다. 교회 안에서는. '저는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실제 삶은 오히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삶의 일들을 선택하고 경영한다.

드라마나 영화, 신문의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이 전부다'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다보니 이 땅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라고 본다. 그래서 저들은 영혼의 존귀함이나 삶의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것을 위해 애를 쓴다. 왜? 이 세상에서 반드시 돈도 벌고, 반드시 권력을 누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단한 유혹이다.

이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 지, 영원한 세상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까지도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본다. 땅의 유혹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가? 보고 듣는 것이 문제다. 영원한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의 귀로는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감의 유혹, 영혼의 만족

이처럼 천국은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데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킬 것은 이 땅에 너무 많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오감의 만족을 넘어서서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을 꿈꾸며 늘 하나님과 연결통로를 열어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맛보지 않고서는 결코 배부르다 말하지 않는 존재가 이들이다. 그래서 아무리 시커먼 세상의 홍수물이 밀려와도 나의 영혼의 샘에서 항상 깨끗한 물이 흘러넘치도록 몸부림친다.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기에 영혼의 만족이 있기까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모함으로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맛본다.

땅의 일과 허망함

영혼의 만족을 구하지 못할 때, 자연히 땅의 것을 구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인생을 항해한다. 마침내 그 끝의 허망함을 드러낸다. 성경에 나타난 사울왕의 마지막 비극은 성도로서 그 삶을 경영해 나가는 일들에 잔뜩 긴장하게 한다. 그 인생의 끝이 너무 잔인하고 처참하다. 하늘의 하나님께 속해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땅의 것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았다. 영혼의 만족을 구하고 살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셨을 텐데 스스로 하나님의 주실 것을 가지려 했을 때에 마침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손인생으로 비참하게 버림받았다.

한날한시에 길보아산에서 자신과 그 아들 셋이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그의 머리를 베었고 머리가 잘린 벌거벗은 시체는 벳산 성벽에 걸었다. 그의 갑옷은 블레셋 온 지역으로 조각난 채 보내졌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시체가 이방인의 손으로 성벽에 전시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수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이다.

아주 잔인하다. 실제 목이 잘린 벌거벗은 시신을 가지고 어떻게 벳산 성벽까지 이동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 비참함에 눈이 절로 감겨진다. 그 길은 개울이 흐르고 황무지 같이 거친 지형을 지나야 한다. 아마도 죽은 짐승을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 피투성이 된 시체를 성벽에 전시한다고 생각해보면 아주 잔인하다는 생각과 함께 가슴 뜨끔한 느낌이 돋아난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끝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 갈수록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인데, 지금은 볼품없어 보이는 원석이어도 정금이 되어가야 하는 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인생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끝이 좋은 인생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한다. 그러나 돈 벌고, 집사고, 차사고,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여유로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한다. '목사님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일하고, 나이 들면 교회 꼭 붙어서 새벽기도도 하고 충성하겠다'고 말한다. 인간 목사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먼 훗날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펴놓고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의 연한이 더해 간다는 것은 천국본향이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본향이 가까울수록 노년이 행복하고 영혼이 강건하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하면 늘 방향을 잘 정하고 살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붙어사는 것이다. 교회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왜 이것이 정답인가?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세상에 값지고 보람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만이 정답인가? 마지막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 땅의 부귀영화 명예장수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순례자이다. 그리스도인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렇다면 그 집의 주인이신, 천국집의 주인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그 나라에 이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 기쁨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집착과 실패, 맡김

사울왕은 왜 그랬을까? 성령도 알고 예언도 하는 영민한 왕이었는데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이다.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진토와 같은 먼지를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붙들고자 했던 '왕권, 권력, 명예', 붙잡고 지키려 했지만 먼지처럼 그 손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생결말을 보았던 것이다. 원래 잡을 수 없는 것인데, 무지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은 잡으려 하면 잡을 수가 없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 중에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못난 아비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

단순하게 맡겼더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것이다. 자신과 자녀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열렸을 것이다. 오늘날 자녀와 생업과 세상의 일들에 잔뜩 집착하는 이들이 많다.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다.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집착과 몰락, 징조와 예언

성경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사울 가문의 끝은 한마디로 '집착과 몰락'이다.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향한 집착과 아들에게까지 물려주기 위한 고도의 정적 제거활동들이 허망하게 끝나는 대목이다. 한날한시에 어떻게 한 가문이 이처럼 몰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징조가 있었고 예언이 있었다.

신실한 아들 요나단의 만류와 두 번에 걸친 목숨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심지어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그와 아들의 죽음소식이 귓가에 들려졌다. 은혜도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기진맥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징조와 예언들 앞에 그는 그가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하지 못했다. 듣고 돌이켜 회개할 줄 몰랐다.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이리 저리 짓뭉갰다. 자신의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과 징조와 예언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만의 패망이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의 동시몰락이었던 것이다. 공동체의 공멸이었다.

깨닫지 못하는 짐승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특히 한국 북한, 미국, 세계 가운데 높고 높은 리더의 자리에서 권력에 집착하는 이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존귀함을 다 내어버리고 이전투구에 너무 열심이다. 패거리 진영논리 앞에 옳고 그름이 없다. 죽고 죽는 것은 백성인데 백성들도 그 리더를 따라 또 나뉘어진다. 집착이다. 집착의 끝에 개인과 공동체는 공멸한다. 북한을 위해 본 교회는 공예배마다 기도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선거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공적으로 기도드린다. 함께 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을에 여름한철 푸르른 잎들도 때가 되매 모두 겸손히 떨어져 낙엽이 되고 거름이 되어 또 다른 새날의 푸르름과 열매를 준비한다. 대 자연의 이 질서 앞에 좀 더 단순해지기를 바래 본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것 외에는 더 집착할 것도, 생명을 바칠 만큼 간절할 것도 없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과 동포 북한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더 집착하고 싶을 뿐이다.

Simple Life, High Spirituality.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미국에 온지 20년이 넘은 한 교회의 안수집사입니다. 청년의 나이 때 미국에 왔는데 벌써 5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 이민자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실제 예가 있다면 그것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하임에서 K 장로

A: 우리는 한국에서 이민 와 미국에 흩어진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과 같습니다. 흩어진 이민자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흩어진(scatter)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흩어진의 헬라어는 "디아스포라(DIASPORA)"인데 "디아(넘어서)"와 "스포라(씨를 뿌린다)"인데 "넘어서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신앙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고향에서 타지로 이주한 흩어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이들 디아스포라를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원래는 흩어진 유대민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물으셨는데 3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위 원어의 설명처럼 씨를 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과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역시 기록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사명은 내 주변의 한인이나 외국인이든지 복음의 씨를 뿌려 전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뿌리기, 교회세우기, 제2의 청교도로

둘째, 교회를 세워 하나님중심, 말씀중심, 교회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유명한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에서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셋째, 이 땅에 제2의 청교도로 신앙심이 사라져가는 이 미국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씨(Holy seed)로 살아야 합니다. 한인 이민자는 비록 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변두리 같은 인간으로 살지만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swan)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6:13). 한인 이민자는 놀랍게도 미국의 청교도의 수와 동일한 102명이 게릭호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도착해 노동자로 왔습니다. 대부분이 선교사로 주선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낙태 천국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향하는 미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영적 돌풍을 일으키는 Korean American으로 거룩한 씨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세르파(SHERPA)

세르파족은 주로 네팔의 동부에 사는 히말라야 부족이다. 그러나 그들의 일부는 인도의 시킴 주의 국경 산악지역과 서부 벵갈 주의 좀 더 큰 고지마을에 살고 있다. 언어는 티벳어의 한 방언으로 티벳-버마 어계에 속한다. 문자가 없지만 많은 세르파인들이 티벳어나 네팔어, 힌디어, 영어로 읽고 쓸 수 있다.

세르파족은 대 라마나 티벳 불교 승려가 통치하는 티벳의 캄 지역에서 이주해온 티벳족 중 한 작은 무리의 후손들이다. 세르파인 텐징 노게이(Tenzing Norgay)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산을 다른 한 사람과 더불어 최초로 등정했던 1953년에, 세르파족은 세계의 관심을 끌었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서의 운반인으로서 유명해졌다. 관광과 등반은 세르파의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이 됐다.

삶의 모습

관광 이외에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다. 아일랜드 감자가 19세기에 이 지역에 소개된 이후로 그것은 그들의 주요 농작물이 됐다. 그들은 또한 보리, 밀, 옥수수도 생산하고 있다. 순무 크기의 무와 수박 크기의 오이를 포함해 다양한 야채들이 집 정원에서 자란다. 동물과 손 기구를 이용해 모든 농사를 짓고 황소가 끄는 쟁기로 경작한다. 세르파인들은 불교도이고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가축들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농품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음식이나 다양한 일용품을 교환한다. 버터와 소금을 섞어서 먹는 수입 차는 지역 맥주인 창(chang)과 함께 인기 있는 음료다.

무역은 세르파인의 또 다른 중요한 수입 원천이다. 남자들은 한 번에 몇 달씩 걸리는 무역여행을 떠나며 여자들은 집에 남아 집안을 돌본다.

세르파인의 결혼은 이족결혼(혈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결혼)이다. 결혼은 전통적으로 가족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오늘날에는 이 전통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결혼은 약혼과 선물 교환의 많은 과정을 포함하는 긴 과정이다. 이혼은 아주 흔히 있으며 전체 결혼의 30%가 이혼하고 있다. 아버지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아주 잘 다루긴 하지만 잦은 무역 여행으로 집을 오랜 기간 비운다. 결과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은 주로 어머니나 언니(누나)에 의해 이루어진다.

세르파의 주요 축제에는 봄의 첫 과일축제인 "둠제(Dumje)"와 가을이나 겨울에 열리는 승려 가면무도 의식인 "참(Cham)"이 있다. 조금 작은 규모의 축제로는 마을 푸닥거리와 출생, 사망, 성년입문과 같은 때에 자주 치루는 정화의 식들이 있다.

신앙

세르파인의 대다수는 대승불교의 분파인 티벳불교를 따른다. 불교도들은 윤회교리를 믿으며 죽음 후에 영혼이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 세르파인들은 영혼이 이 세상을 초월하여 "열반(nirvana)"이라고 부르는 극락 상태로 들어갈 때까지 수없이 윤회한다고도 믿는다. 그러나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세상의 소욕과 습관들을 정복해야 하며, 이것이 불교에서 명한 것을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목표다. 티벳불교는 불교의 주류와 기본적인 신앙을 함께 하지만 티벳불교는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신과 악령, 영혼에 대한 믿음과 같이 비불교적인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20세기에 많은 세르파인들이 불교 승려가 되거나 티벳에서 들어온 의식인 "라마(lamas)"가 됐다. 이러한 라마들은 은둔된 라마교 사원(티벳불교의 수도원)에서 속세생활과 격리된 독신생활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의 대다수 종족과 마찬가지로 세르파인들은 매우 다른 생활을 한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세르파인들은 진리에 대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필요는 물질적 필요보다 훨씬 중요하다. 기독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5가지 주요 경향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부모는 종교를 포함해 여러 면에서 십대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절반가량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

미국 청소년은 부모보다 덜 종교적이다. 뿐만 아니라 45%의 청소년은 많은 종교가 참일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31%만이 하나의 종교만 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해서 교회에 가는 경우(35%) 보다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경우(38%)가 더 많았다.

13-17세 사이의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의 5가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부모와 종교적 정체성을 공유한다. 하지만 소속된 교파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부모가 복음주의 개신교단에 속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부모와 같은 교단에 속한다. 그러나 주류 개신교 교단(연합감리교회, 성공회, 미국장로교 등)에 속한 부모들을 가진 청소년은 부모와 같은 교단일 가능성이 55%로 낮아지며, 24%는 종교가 없다. 가톨릭 부모를 둔 청소년 81%는 가톨릭이며, 무종교 부모를 둔 청소년은 86%는 종교가 없다.

2. 약 절반(48%)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모두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모와 "일부 같은" 신념을 공유하거나 "아주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나머지 청소년들의 34%는 부모가 자신과 종교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킨다(17%)고 했다.

3. 미국 청소년은 부모보다 덜 종교적이다.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매일 기도하고(27% 대 48%)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40% 대 63%) 종교를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낮다(24% 대 43%).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말할 가능성이 조금 적고(63% 대 72%), 무종교라고 말할 가능성이 부모보다 다소 높다(32% 대 24%).

4.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 모두(40%) 또는 한 명(25%)과 함께 종교 예배에 참석한다. 또 다른 7%는 일반적으로 조부모, 다른 가족 또는 친구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석한다. 단지 1%만이 예배에 혼자 참석한다. 대략 4분의 1은 그들이 전혀 종교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무응답이었다.

5. 청소년들은 주로(38%) 부모가 그들에게 원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며, 자신이 원해서 가는 경우는 35%로 더 적었다. 반면 26%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카톨릭과 주류 프로테스탄트와 달리 대부분의 복음주의 개신교 청소년(64%)은 주로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다. 일반적으로 2/3의 청소년들은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에 참가한다. 하지만 그렇게 종교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청소년들은 종교활동을 통해 "많은(27%)" 또는 "어느 정도(51%)" 즐거움을 얻는다.

남침례교가 GCB로 이름 바꾸려는 이유

남침례교 총회장 J.D. 그리어는 9월 14일에 2021년 총회 주제가 "We Are Great Commission Baptists"라고 발표했다. 이 주제가 관심을 받는 것은 남침례교 지도자들이 교단이름을 SBC(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GCB(Great Commission Baptists)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변경을 고려하는 이유는 최근의 인종적 불안과 갈등 가운데 SBC의 노예제에 대한 과거의 지지 때문이다.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침례교회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제일침례교회 마샬 블라록 목사는 과거에 뿌리를 둔 지역 이름(SBC) 대신에 임무 중심 이름(GCB)을 지지했다.

J.D. 그리어 총회장은 교단 언론과 인터뷰에서 "GCB가 2012년에 처음 제안 되었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총회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가 지상대명령을 위한 것이므로 지금이 사용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남침례교(SBC)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 교단이다. 1845년에 북부 침례교도들로부터 반대하는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남부 침례교인들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다. 1995년 SBC 창립 15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계 미국인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노예제도 지원에 대해 사과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SBC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죄로 비난하며, 노예제도와 같은 역사적 악의 행위를 거부한다. 모든 아프리카 계 미국인들에게 우리 일생 동안 개인적이고 체계적인 인종 차별을 용납하거나 영속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죄를 지은 인종 차별을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탈북민 8명 강제 북송 막아달라"

6개월 아기를 임신한 여성을 포함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다.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사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는 "북한에 가면 죽는다. 운이 좋아 살아도 정치범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북송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는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죽음, 美대선 영향

미국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자 선구적 페미니스트였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사진) 연방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87세.

긴즈버그의 별세는 6주가량 남은 미국 대선에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후임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두고 진보·보수 진영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체 없이(without delay)" 지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선 후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CNN방송은 긴즈버그의 죽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상치 못한 정치적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혼돈으로 점철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법원의 보수화라는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됐다. 트럼프가 지명해 의회 인준까지 마친 보수 성향 연방법관은 지난 6월 200명을 넘어섰다. 재임기간 기준으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많다. '법원 보수화'는 보수 진영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트럼프의 공로다.

특히 대법원은 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 기관이다. 총 9명인 대법관의 이념 지형도는 지금까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다. 트럼프가 진보를 대표했던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 인사를 임명할 경우 보수 6명, 진보 3명이 돼 이념 지형이 보수 쪽으로 확 기울게 된다. CNN은 트럼프에 염증을 느끼는 공화당원들조차 긴즈버그의 죽음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법원 보수화 완성의 기회로 여길 것이라며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트럼프 지지로 결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반대 전망을 내놨다. 긴즈버그 별세 전인 지난 10~16일 애리조나·메인·노스캐롤라이나 3개주 유권자 6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NYT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민주당 대선 후보)이 차기 대법관을 임명하길 바란다'는 답변은 53%로 '트럼프가 하길 바란다'는 답변(41%)보다 12% 포인트 많았다.

NYT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지 후보를 확실히 정하지 않았거나 투표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은 유권자들이 후임 대법관 임명 문제에서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긴즈버그의 죽음이 본선 투표에서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다음주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여성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쿠바계 여성인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 등이 거론된다. NBC방송은 배럿 판사가 선두주자라고 전했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은 4년 전에도 있었다. 지난 대선이 실시됐던 2016년 2월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진보적인 메릭 갤런드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은 인준을 거부했다. 결국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4년 전과 같은 상황이 공수만 바뀐 채 재연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의 후보 지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대법관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저지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또 말실수 "코로나로 2억명 사망"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이은 실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은 바이든 후보가 2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 헌법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내가 이 연설을 마칠 때쯤 2억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인구가 3억2800만명 정도인데 미국 사람의 3분의 2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말한 셈이다. 실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0만 여명으로, 이 숫자를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바이든 후보의 실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사람들은 직업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억2000만명을 넘었다"고 잘못 말했다.

폭스뉴스는 계속된 실언으로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할 통수권자로 봉사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실수가 반복되는 가운데 선거전 초반 큰 우세를 보였던 바이든 후보는 몇몇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집히는 등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6일 라스무센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7%를 기록, 바이든 후보(46%)를 1%포인트 앞섰다. CBS가 20일 발표한 접전지 플로리다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48%, 트럼프 대통령은 46%로 2%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지난 7월 같은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는 6%포인트에 달했다.

폭탄과 폭도 위협 속 예수님 만나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최근 보도된 조지 무시 목사와 그가 이끄는 시리아 카미실리에 연합교회(Alliance Church)를 다니는 한 여성이 폭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소개했다.

2019년 10월 카미실리에 살던 소잔(Sozan)은 '평화의 봄' 작전을 전개하던 터키군의 폭탄 두 발이 집 바로 근방에 떨어지는 것을 가족과 함께 온 몸으로 느꼈다. 소잔은 "우리는 너무 무서웠다"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회상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연합교회 조지 무시(George Moushi) 목사의 사모인 한난(Hannan)은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그녀의 목숨을 위협한 것은 폭탄만이 아니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그녀는 이웃 주민들에게 감시의 대상이자 표적이 됐다. 소잔은 "내 여동생들과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 교회에 가기 시작한 후, 이웃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개종한 지 6주쯤 지난 어느 날, 여동생과 외출을 하던 그녀는 정체 모를 남성들이 다가오는 일촉즉발 상황을 경험했다고 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6. 김창순(1904-1977)

김창순은 1904년 10월 5일에 태어났다고도 하고, 이듬해 11월 5일에 출생했다고도 하는데 함경북도 영흥 옥기에서 김태현과 장유완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함남 안변에서 초등학교를 끝낸 그는 개성 송도 한영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했다.

1926년에 하와이로 이주하고 호놀룰루 이올라니 중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한 후 1930년 4월에 윤성현과 함께 나성을 거쳐 미국 캔사스주 엠포리아에 있는 캔사스 주립사범대학에 입학하여 1932년에 졸업한 후 엠포리아 대학에서 경영학으로 1933년에 졸업하였다. 그해 여름 학기에 같은 주 오타와에 있는 침례교 학교인 오타와 대학교에 입학하여 1936년에 졸업했고, 같은 주 숀니에 있는 중앙침례교 신학교도 1936년에 졸업했다. 이후 나성으로 이주하여 남가주 대학에 입학했다.

김창순의 관심은 두 가지였다. 그가 1930년에 신한민보에 기고한 '건설과 국어학교'와 '미국 출생의 우리의 청년'에서 주장하는 대로 2, 3세 미주한인 청년의 국어를 통한 민족건설에 있었다. 그리고 1939년 11월 12일에 이창희와 장 S.Y.와 함께 설립하고 본인이 회장이 된 한미문화협회였다. 그런데 호놀룰루에서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된다.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김창순은 1940년 9월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에 부임했다. 그런데 그의 목회는 매해 평가하여 재계약하는 조건이었다. 1941년 교회 임원으로 부사에 손노듸와 김학성, 탁사에 이재연, 이원순, 강영복, 양유찬과 문인화, 재무에 최성대, 황원태와 손승운, 주일학교 교장에 김학성, 서기에 김유실, 집사에 정순이, 이영옥, 조매륜, 백인숙, 전영복, 민함나, 심영선, 이복수, 김유실, 안득은, 김엘리사벳과 조해나 그리고 평신도회장에 김광재였다.

김창순은 그해 한인선교부 연회에 참석했고, 거기서 민함나와 김국겸과 함께 분묘 심방위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해 1월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에서 개최한 연회는 그의 안을 받아들여 연회가 청년사역과 문화 사역에 주력하여 연회 내 각 부처의 책임을 청년에게 맡기고 교회 임원회도 청년 임원회와 장년 임원회로 나누었다.

김창순(1932년)

이듬해 김창순은 "죽도록 충성하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새해 축하메시지를 통해 많은 교우에 비해 교회공간이 부족하고 청년들을 위한 장소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별도의 주일학교 설비와 청년회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박삼용 건축사가 설계한 청년회관은 4, 5천 명의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 아래층에는 운동실이 있고, 2층에는 교실과 기념 사무실 등이 있는 총 2만7천 달러의 목조건물이었다. 3천 달러 기부자에게는 방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모금하여 10,000달러만 더 모금하면 되었는데 전쟁 중이라 이 청년회관은 지어지지 않았다.

그해 3월 김창순은 교회건축 빚 5,000여 달러를 갚기 위하여 특연을 노력했다. 주일 아침예배는 한국어와 영어 등 언어별 예배를 따로 드렸는데 한국어예배의 경우 각 순서에 소요시간을 정해둔 점은 획기적이다. 기도는 5분간, 광고는 3분간, 설교는 15분간이었다. 그때의 기도가 오늘날의 기도보다는 2분이 길었고, 그때의 설교는 20분에서

25분을 할당하는 오늘날의 설교보다 짧았다.

그해 5월에 김창순의 설교가 '태평양 주보'에 실렸다. 그는 '기독교회 장래'라는 제목 아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재정과 인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위의 설교를 통하여 이후 5년 재무계획을 세워 청년회관을 건축하고 임대 가옥을 더 지어 교회 재무를 탄탄히 하고자 했다. 그런데 김창순 목사가 임원회 동의나 임원의 허가 없이 경비를 쓰고 청구서를 교회에 보내는데 항의하여 재무를 맡은 김영기와 황원태가 재무직에서 사임하였다. 이에 이유섭과 문인화가 그들의 후임으로 선정되었는데 김창순의 재무 사용 방법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1901년에 내한하여 목포와 전주에서 사역한 루터 O. 맥커천(마로덕)이 1941년에 일제에 의해 추방되어 도미하였는데 아펜젤러 목사의 소개로 본 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1941년 11월 13일에 본 교회 한영 연합예배에서 강대상에 섰다. 그는 영어와 한글로 능숙하게 설교했다. 그는 한인 기독학원에서 영어와 성경도 가르쳤다. 그해 12월 7일 일본은 선전포고조차 하지 않은 채 오아후 섬 진주만에 정박한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였다. 당시 중립이었던 미국이 태평양전쟁에 뛰어들자 교회 청년이 징집되어 전쟁터로 향했다. 김창순의 청년사역은 청년회관을 넘어 청년의 안전이라는 다른 국면을 맞았다.

1940년 호놀룰루한인기독교회 부임, 1956년 워싱턴 제일한인침례교회 개척
목회외 한미문화협회 사역에도 힘써 1943년 하와이대학에 한국도서실 설립

신흥국어학교는 계속되었다. 1941년 말의 1년 총수입은 604달러18센트지만 총지출은 609달러 79센트로 5달러의 적자를 냈다. 그러나 2, 3세에게 한글교육은 중단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이었다. 이듬해 2월 16일에 38세인 김창순도 제2차 세계대전 징집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그가 친필로 적은 인상착의를 소개한다. 5피트5인치 곧 165cm의 키, 갈색 눈, 검정 머리, 연갈색 얼굴에 체중은 145파운드 곧 65.8Kg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천연두로 인한 흔적이 있었다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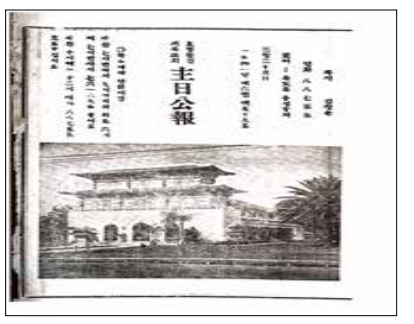
1942년 6월 28일 주일에 미 육군과 해군을 위한 특별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 민함나, 김봉순, 이유실, 윤덕아, 김노듸, 김순남, 이원순이 300여 명의 군인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고, 음악순서도 마련하였다. 본 교회 청년에 대한 징집 명단이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다. 민간방위청에서 태평양전쟁 중 민간의 사기를 돕는 목적하에 조직한 한인 사기부(Korean Committee Morale Section) 10명 위원에 대한 부인 보조회를 대표하여 김노듸가, 태평양주보 편집인 김영기 그리고 한족 연합위원회 회장 이원순 등 본 교회 교인 3명이 활동했다.

무엇보다도 이 해에 교회건축 빚을 완전히 갚았다. 김창순이 부임한 다음 달인 1940년 9월에 3,300달러를 갚은 데 이어 1942년 7월 15일부터 한 달 반 동안 특별 모금을 하여 7,040달러를 갚았으며 약 5,000달러가 적립되었다. 이로써 입당한 지 4년4개월에 헌당예배를 드렸다. 건축 빚 상환의 주역은 민함나, 김종술, 이유실, 문인화, 최경애, 이묘옥, 남순남, 전영옥, 손노듸, 정순이, 손승운, 심영신, 김복덕, 이원순, 이영옥, 양정선, 서복수, 정운서, 김상범, 배일진, 김제희, 김신복, 김성률, 윤덕아, 장얼리하, 이봉운, 심영근, 윤싸라 등 건당특연위원이었다.

1942년 교회 재정의 총수입은 13,229달러였고 지출이 12,386달러로 잔액이 800여 달러여서 그만큼 재정적 여유가 있었던 것은 김창순의 인재등용과 무관치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순이 남긴 마지막 글, '천국 가는 길'의 한 부분을 아래에 소개한다.

"실행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믿는 것을 일에 나타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로써 해야 한다. 실행 없는 믿음은 나와 남을 유익하게 못한다. 실행은 곧 소금이고 빛이다. 이 소금과 이 빛이 곧 천국 가는 길이다.

김창순의 사역에는 목회 외에 한미문화협회 사역도 있었다. 그가 하와이로 오기 전 나성에서 조직한 한미문화협회 회원을 이곳에서도 모집했고, 한국도서관 설립 장학기금을 마련하였다. 그는 1943년 5월에 하와이대학에 한국도서실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미국 대학 중에서 최초였다.



1941년 3월 23일자 호항 한인기독교회 주보 교회, 1930년

김창순의 도움으로 부인협동회가 1944년 6월에 부인들의 친목조직으로 결성되어 김엘리자벳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50여 명의 회원이 회비를 각출하여 회원 장례조화나 야외예배 경비 등에 지출하였고 저축금이나 특별 모금을 통해 교회 청년관 건축기금으로 기부했다.

김창순은 건강상 이유로 목회를 사임하게 된다. 그는 1944년 7월 30일에 마지막 예배를 인도했다. 그의 사역은 만 4년간이다. 그 후 그가 하와이에서 휴양하면서 한미문화협회의 지난 5년간의 사업 보고를 신한민보에 실었다. 1947년 3월 19일에 호놀룰루를 떠나 나성으로 가서 3427 맥크린톡 애비뉴에 짐을 풀고, 이곳에서 목회를 계획

제일한인침례교회 창립 2주년(1958년)

했으나 다음 달 7일에 나성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했다.

워싱턴 제일한인침례교회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김창순은 1948년에 서울의 한국 침례교 진흥본부 사업차 도미하였는데 1951년에 미국 수도 워싱턴 디시로 이동했다. 화부 한인감리교회가 조직된 그해 10월 14일 이전이었다. 그는 3200 Rittenhouse Street, NW, Wasington D.C.의 주택을 구매하고 개조하여 1956년 5월 6일 아침 11시에 이곳에서 30명 정도의 교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워싱턴DC에서 두 번째의 한인교회인 '미국제일한인침례교회'를 설립했다. 이날 그의 설교 본문은 시편 119:9이었는데 젊은이를 위한 교회임을 보여준다. 본 교회는 미주에서 처음 설립된 한인침례교회이기도 하다. 최초의 세례교인은 정형외과 전문의 훈련을 받기 위해 뉴저지에서 온 심선식이다. 그가 김치를 사러 한국가게에 갔다가 김창순을 만났고, 여기 큰 한인교회가 있지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자하니 함께 하자는 김창순의 권유에 그가 따랐다. 그해 11월 본 교회는 워싱턴DC 침례교회 콘벤션에 가입했다. 이 무렵 워싱턴에는 200여 명의 한인이 거주했다. 다음 달 그는 목회일선에 나서지 않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강원용 목사를 설교목사로 초빙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그의 귀국으로 1958년에 서울 종로침례교회 안병국 전도사가 부임했다.

김창순은 1977년 5월 19일에 미국 일리노이스에서 향년 73세로 소천하여 같은 주 레이크카운티 내 레이크 포리스트에 있는 레이크 포리스트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EM)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804)560-7500, www.i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목사의 소명 II" (3)

참된 목사 적은 이유: 콜링 경시, 소명감당의 어려움, 신분과 경제적 보상 미미
제안: 목회소명 존중, 목회 도움 되는 학문연마, 목사존경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3장 새롭게 하시고 재 위임하심

퍼킨스는 이사야 6장 8-9절에 묘사된 선지자의 위임갱신에 대해 세 가지로 언급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두 번째는 선지자의 대답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셋째는 위임을 새롭게 하심으로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하심이다.

1)하나님의 질문-오늘 이 시대에 능력 있고 경건한 목사를 찾기가 어렵다. 먼저 신학생들은 목회 사역을 잘 준비해야 한다. 목사는 목사답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 무자격 목회자들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만 한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목사가 그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적용-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러기에 목사는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에게 아첨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교리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며,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3)이사야의 대답-목사가 죄 용서를 받고 영혼과 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기쁘게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신학생들은 신학준비를 핑계로 목회사역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목사는 주님이 보내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4)이사야가 받은 위임-목사의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목사의 소명 없이 목회 사역을 할 수는 없다. 내가 목사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적 소명(양심의 판단)과 외적 소명(교회의 판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퍼킨스의 "목사의 소명"에 있어서의 독특성

1)"목사의 소명"에서 가톨릭의 제도 반대와 천사론의 독특함

퍼킨스에게 있어 독특성은 구약을 근거로 하여 제사장적 목사이해와 천사론이다. 주도홍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이는 퍼킨스가 소속된 영국 국교회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카톨릭적 사제론과는 차별을 보이면서도 퍼킨스는 중보자로서의 목사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그의 목사를 돕는 천사에 대한 입장은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 볼 때 잘 다루어지지 않은 낯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서 제시되는 천사는 위로가 된다.

퍼킨스는 카톨릭교회의 고해성사를 "간교한 술책이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옥죄는 고문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면서도, 성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죄 때문에 빈번히 목사를 찾아와서 "경건한 도움과 거룩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고백"은 인정한다. 목사가 자기 양떼의 영적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는 백성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목사가 부패한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퍼킨스가 카톨릭 교회와는 분명한 구분을 가지면서 동시에 영국 국교회 소속 목사의 한 사람임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퍼킨스에게 있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 보냄을 받았음이 분명"한데, "이것은 모든 목사에게 커다란 위로와 가치가 있는 교리"로서, 천사들이 신실하고 경건한 목사들을 더 많이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들에게 주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울러 천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 목사의 사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목사들은 천사들을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섬기거나 숭배하지는 않는다. 천사숭배는 "주제 넘는 일"이다. 천사들의 섬김을 통해 성도들이 목사들을 존경하는 자세를 가짐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의 종들은 고된 소명 가운데서도 위로와 만족을 얻으며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기쁘게 주의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다.

퍼킨스의 천사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설교자를 기꺼이 도우신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기쁜 일인지! 설교자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한다.

2)"목사의 소명"에서 제도적 개혁추구를 위한 지침

퍼킨스는 참된 목사의 희소성에 대해 "일천 명 중의 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참된 사자요 참된 해석자인 진정한 목사는 흔하지도 통상적이지도 않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드물며, 참으로 적은 사람, 즉 '일천 중의 한 사람'이다." 아니 "일천 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고까지 말하기에 이른다.

퍼킨스는 참된 목사가 적은 세 가지 이유를,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시함, 둘째, 목사의 소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움, 셋째, 목사의 신분과 경제적 보상이 미미함으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퍼킨스는 구약에서 레위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지침이 주어졌음을 근거로 말하며, 교회가 목사에게 그 어떤 직업보다도 "가장 크게" 대우를 해줄 것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개혁을 위한 "훌륭한 기독교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돈을 밝히는 목사를 바른 목사로 퍼킨스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목회지를 결정할 때, 목사는 경제적인 조건을 따지기보다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이 어떤지, 어떤 영적 상태인지, 그들이 과연 경건을 사모하는지 등이 목회지의 결정 기준이 되어야지, 다른 조건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3)실제적 제안 지침

가)양질의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 통치자들과 군주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이다." 나)목회소명을 귀하게 여겨 타인들도 목회소명을 사모하도록 해야 한다. 다)학문연마가 직접적으로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되, 학문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리어 현장에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야 한다. 퍼킨스는 영국 국교회의 정책으로 또는 영국국가의 정책으로 제시하는데 그가 영국 국가교회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진짜행복

삶의 진짜 행복이 뭘까? 좋은 사람들을 곁에서 바라보며 사는 것이란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리라. 어제 저녁을 먹으며 남편과 딸아이와 셋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딸아이는 먼저 엄마 아빠가 살아계셔서,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눈물을 그렁거리며 말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루 살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맺는 관계들도 잘하느라 힘들었는데 엄마 아빠는 늘 자기를 믿어주고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딸이 일하는 게 많이 힘든가 보다. 그렇다. 굉장한 게 아니더라도 살아있어서... 같이 밥 먹어서... 노상 하는 일상 일들에 감사하는 자는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편리해졌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에 중독되어 점점 더 편한 것만 추구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전기밥솥이 아니면 밥을 할 수 없고 무엇이든 슈퍼에서 사다가 뚜껑만 열면 먹을 수 있는 세상, 빨래도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되고 TV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온 세상을 몇 초만에 왕래하는 급변하는 문화의 물줄기로 인해 요즘은 가족끼리도 세대 차이를 심각하게 느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을 본다. 그래서 아이들은 머리가 크기가 무섭게 집 밖으로 나갈 궁리를 하고 그리곤 시간이 좀 지나면 형제도 부모도 다 남남같이 되어 사는 지독한 이기주의의 병에 걸려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는 메마르고 삭막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편리해지고 고도로 발달된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인데 우린 여전히 방방 뛰고 더 피곤하고 더 짜증나며 더 많은 병치레들로 우리네 얼굴들이 찌들어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세상사는 삶의 질이 높아진 대신 상대적으로 잃은 것도 많은 것 같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사랑에 굶주린 사자처럼 건들기만 하면 폭발해 버릴 것 같다. 아파트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몰라서 다시 핸들을 돌려야 마음이 놓이고... 이렇게 대문도, 마음의 문도, 생활의 문도 꼭꼭 잠그고 살아야 맘이 편한 우리가 아닌가. 많은 어르신들은 말로는 혼자 계신 것이 너무 외롭다고 하시면서도 누가 찾아가는 것도 귀찮아하며 그런 외론 삶을 자처하고 사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따라 잡을 수 없는 고도의 문명과 모든 것이 인스턴트화 되고 더 빨리...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격과 영성관리에는 인스턴트가 없지 않을까? 매일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고 다스려가야 하리라. 그렇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마12:35) 우리의 영은 선한 것들의 저장소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영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우리 영안에 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엄청난 보화들을 끌어내어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붓는 일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도록 말이다.

늘 불편하다는 것으로, 덜 가진 것으로 불평의 주제를 삼았던 일들이 딸아이의 살아있어 줘서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부끄러운 내 모습을 또 한번 깨닫는다. 그렇다. 진짜 행복이란 매일 봐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그리고 매일 대해야 하는 내 일상들과 잘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들과 그저 사랑에 빠지는 진짜 행복을 이 글을 쓰면서 다시 마음에 담아본다.

changsamo1020@gmail.com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축복받을 사람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누어지는 듯합니다. 첫째는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류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복을 받지만 미래에도 크게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도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미래에는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주를 믿는 교우들 중에도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겸손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 분명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볼 때에도 '저분은 아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힘겹고 무명한 처지인지라 곧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분이라는 확신을 주는 이들 말입니다.

가끔 기복신앙 혹은 물량주의를 지적하는 이들을 보는데 나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나 교회주변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거나 구체적인 기록인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주심이 절실한 존재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을 가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엄청난 결단을 하고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실재적 고통을 안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데 만약 교회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친다면 저들은 교회생활의 문턱에서 낙오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고 훌륭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즉, 축복받을 사람으로 서의 길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의 부류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양심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을 대충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유익이 될지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자각을 가집니다. 성경은 축복받을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의 길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밝히 설교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의 길과(28:1-14)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의 길을(28:15-57)대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의 무서움과 참혹함을 깨달아서 저주받을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축복받을 사람의 길을 선택하면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차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펜데믹' 상황에 가정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생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함으로써 펜데믹의 시간은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부해질 때에 우리들에게는 다시 일상적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 받는 받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yd777@hotmail.com

2020다민족 연합기도대회에 관한 기자회견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0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연다

10월 16일(금) 저녁 7시30분 은혜한인교회

2020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10월 16일(금) 저녁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다민족기도대회 준비위원회(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 주관으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9월 17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 웨딩 채플에서 열렸다.

팬데믹 상태로 현장 100명만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한기홍 목사는 "미국 중보기도팀이 2011년 11월 11일 특별한 날 정해 다민족기도대회를 하면서 한인교회를 초청한 것이 다민족기도대회에 같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며 "당시 한인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한인교회의 기도회 인도하는 시간을 할애해줬다. 2014년 다민족기도대회부터 한인교회들이 주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2017년부터 은혜교회에서 했는데 지난해는 좀 더 기도로 준비하기로 하고 열지 못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악조건이 됐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특별히 올해는 미대선이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은 대혼란에 빠져있다. 리더십이 잘못 세워지면 많은 것이 무너지는 중요시점에 있다. 미보수기독교단체 중보기도팀은 금식기도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열었던 국가기도의 날 때 기도회하면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나 되어 기도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연합기도대회를 한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대표기도자들이 한다. 각자 언어로 기도하지만 자막으로 띄워 기도내용을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한다면 영향력 있게 기도회가 될 것이다. 뜨겁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돼 약속의 말씀이 다민족기도대회 통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는 "다민족이 함께 모여 공동 기도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귀하다. 그러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민족을 초월해 기도하는 것은 귀하다. 하나님 뜻을 살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도대회는 1부 예배, 2부 다민족연합기도회로 진행된다. 예배는 이성우 목사가 진행하며 민승기 목사 개회기도, 이명희 목사 성경봉독, 한기홍 목사 메시지를 전한다.

2부 기도회는 4분 동안 주제 메시지를 전하며 통성기도 후 기도 강사가 기도로 마무리하게 된다. 기도제목은 △회개와 코비드19 △미국의 회복 △지도자와 선거 △미국사회정의 △청교도신앙회복과 고국교회 △한인선거 후보자의 소개와 중보기도.

강순영 목사(준비위원장/자마대표)는 "이번 기도대회를 위해 333기도운동-하루 3번 3가지 기도제목(△코비드19 속히 종식 △미대선 △대부흥이 미국과 세계각처에 임하게)으로 3분씩 기도하는 캠페인으로 이를 통해 미국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세계 교회와 선교 이끄는 은혜로운 역사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순영 목사는 다민족 기도대회에 타인종 교회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강 목사는 "11.11.11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교회들이 이번 대회에도 함께한다. 하지만 대형교회들의 참여가 저조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새들백교회와 갈보리채플 등 미 대형교회들의 관심도는 매우 낮다. 참석한다고 해도 교인들이 아닌 사역자들만 참석해 다민족기도대회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회의 리더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나가게 할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총 44명 지원...온라인 시상식

한미특수교육센터 장애인식개선 위한 글짓기 공모전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 주최 연방 장애인법(ADA) 제정 30주년 기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4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는 장애 관련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에게 장애란 어떤 의미인가'와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미국 내 13개주와 해외에서 총 44명이 지원했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이번 행사의 후원을 맡은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의 케이 서 회장과 제니퍼 장 변호사, 에드워드 한 연방검사가 심사위원을 맡아 1등 아비게일 하미드 양(펠리세이즈 차터고교 10학년), 2등 조셉 호 군(OC 스쿨 오브 아츠 9학년), 3등 이다은 양(발렌시아 고교 9학년)을 선정 했다.

또 최종 본선에 오른 10명 중 나머지 7명은 가작에 뽑혔다.

시상식에서는 링링 챙 가주 상원의원이 학생들에게 상장을 전달하며 격려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심사를 맡은 케이 서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실제 경험을 주제와 연결해 글로써 잘 표현한 것에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제니퍼 장 변호사는 "이번 수상자들 중 자신이 가진 장애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잘 표현해 장애인들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고 치하 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로사 장 소장은 "첫 공모전이었는데 기대보다 훨씬 많이 응모해 보람 있었다"며 "학생들이지만 장애에 대한 생각이 어른들 못지않았고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세가 보였다"고 평가했다.

수상작들은 한미특수교육센터 웹사이트(www.kasecca.org)의 뉴스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샬롬장애인선교회 사랑의 양식보내기 온라인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이 찬양하고있다

박모세 목사 칠순기념 독창회로 열려

샬롬장애인선교회 사랑의 양식보내기 온라인음악회

샬롬장애인선교회 사랑의 양식보내기 제 17회 연례콘서트가 20일 오후 7시 유투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음악회로 개최됐다.

박모세 목사는 "제17회 연례콘서트를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해마다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음악회를 열어왔는데 올해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음악회를 하게 됐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양식을 보내기위한 콘서트로 열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70세를 맞은 박 목사는 "지난 70년을 돌아보며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어떻게 보내게 될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칠 사모는 "세계 12개국 선교사를 통해 양식과 예수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교사들이 큰 힘을 얻고 많은 관심과 뜨거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박모세 목사 독창회로 열렸으며, 소프라노 이영주 사모, 보컬리스트 배주은 자매, 피아니스트 안정희, 바이올린 김정아, 첼로 김원선 3중주가 찬조 출연했다.

〈박준호 기자〉

CRC 한미노회는 2020가을노회를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었다

신임서기 문상면 목사 선출

CRC 한미노회 2020 가을노회, 온오프 동시로

CRC한미노회가 9월 15일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2020년 가을노회를 개최했다.

이번 노회는 코비드19로 인해 18명만 노회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날 노회는 서기 임바울 목사(샘솟는교회) 임기만료에 따라 신임 서기를 문상면 목사(생명샘교회)로 선출했다. 서기 임기는 2년이다.

〈박준호 기자〉

어? 생터성경사역원 LA 3기 전문강사스쿨 개강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 개강예배

LA 3기 전문강사스쿨 줌 통해 진행

'어? 성경이 읽어지네'(생터성경사역원 LA지부장 김덕수 목사) LA 3기 전문강사 스쿨 개강예배가 14일 오후 6시30분 Zoom을 통한 디지털대면예배로 진행됐다.

장재영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흥철 목사의 기도와 강태동 목사의 성경봉독(스7:10)이 있은 후 김덕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덕수 목사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의 제목으로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는 사람은 적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번에 입학하게 된 28명의 학생들은 택함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원한다. 당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욕망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그들을 징계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셨으나 회복시키셨다. 에스라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쳤다. 전강스쿨에 입학한 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자신의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망하자.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일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꾼다. 우리는 교사가 되기 이전에 신실한 안내자가 되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생터성경사역원 부대표 김강현 목사가 축사를, 미주 권역장 백성환 전도사가 격려사를 전한 뒤 강진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입학한 28명의 학생들은 예배 전 1시간30분 동안 배치고사를 치렀으며 앞으로 6개월간의 집중훈련을 마친 뒤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졸업과 함께 전문강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LA지부는 2018년 설립된 후 현재까지 42명의 전문강사를 배출했고, 지부에 소속된 전문강사는 83명이다. 이 사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ahajausa@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1기 12주간 진행 총 18명 수료

GMAN대학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교사역개발아카데미 수료식

GMAN대학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교사역개발아카데미 1기 수료식이 9월 16일 열렸다.

김정한 선교사 사회로 열린 수료식에서는 박남호 Nesten 대표가 강진연 선교사, 김진진 전도사, 노정순 전도사, 노정해 목사, 박성희 집사, 이베드로 목사, 이봉하 목사, 이원규 목사, 이임숙 권사, 수잔리 권사, 진리 집사, 신득균 선교사, 신용 PD, 제임스하 선교사, 정명숙 사모, 조이안 전도사, 안사라 목사, 최애릭 형제 등 18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어 박남호 Nesten 대표가 격려사를 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교사역개발아카데미 1기는 지난 7월 1일 시작해 9월 16일까지 12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수료식 전 노정해 목사 사회로 드린 예배는 김정한 선교사가 사무엘상 17장 47-51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이봉하 목사(애나하임 아름다운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GMAN대학이 주최한 4차산업혁명시대의 선교사역개발아카데미 1기 수료식에서 참석자들과 수료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건축 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건축 바자회가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6시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본 교회 파킹장에서 열린다. 음식주문은 홈페이지나 카톡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718)886-4400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추계부흥성회가 10월 1일(목)부터 4일(주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진재혁 목사(케냐선교사)이며 일정은 1일(목) 오후 7시30분, 2일(금) 오전 5시30분, 오후 7시30분, 3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4일(주일) 오전 7시30분, 오전 9시20분, 오전 11시30분, 오후2시.

▲문의: (714)446-1000

가스펠 인사이트 스쿨 시즌2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가스펠 인사이트 스쿨 시즌2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6주간에 걸쳐 열린다. 커리큘럼은 △신념과 신앙, 율법과 은혜 △죄와 의 △변화와 교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울한 것은 죄가 아니다 △마음에 대하여 등이다. 후원회비는 30달러이며 화상 앱 줌으로 진행된다.

▲문의: (646)300-4790

온라인 교사 세미나

Child Evangelical Fellowship of GNYC가 주최하는 온라인 교사 세미나가 10월 10일(토)과 17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미동부시간) 열린다. Overcom Together란 주제로 최신일 목사(LA세계선교침례교회 차세대 담당사역 온라인 티칭 전문강사)와 최종대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회비는 20달러.

▲문의: bigbell59@gmail.com 최종대 목사

교사대학(TCE) 1단계

뉴욕어린이전도협회(최종대 목사)가 주최하는 교사대학(TCE) 1단계가 10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10시까지(미동부시간) 온라인 줌으로 열린다. 등록비는 165달러(10월4일까지 등록시 150달러) 교재 포함.

▲문의: (312)286-4646

남가주온유한교회 나눔행사

3주년을 맞은 남가주온유한교회(담임 장범원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갖는다. 오는 26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매그놀리아와 라팔마 길 코너에 위치한 미주복음방송(2641 W. La Palma Ave. Anaheim) 파킹랏에서 세정용 물티슈, 마스크, 쌀, 라면 등을 담은 구디백을 드라이브쓰루 형식으로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또 3주년 감사예배는 27일(주일) 오전 11시 부에나팍 지역 랄프 클락 공원(8800 Rosecrans Ave. Buena Park)에서 야외예배로 드린다. 한편 남가주온유한교회는 지난 달 미주 지역 14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에 1,000달러 씩 긴급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문의: (626) 833-7787 장범원 목사

GMU-사립 학교 교사 자격증 설명회

그레이스미션대학(GMU 총장 최규남 박사) 사립학교 교사 자격증 설명회가 10월 1일(목) 오후 3시 개최된다.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로 진행되며 해당 시간에 학교 홈페이지(www.gm.edu/online)에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선택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관련 PPT 자료 및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GMU는 현재 미 연방 교육국 USDE가 인정 학위 인가기관인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로서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과 연방정부 학비보조인 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CAL GRANT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714)525-0088, admissions@g

KPCA 뉴욕 일원 화상 정기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팬데믹으로 연례총회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그리고 7월에는 임원회에서 전 총회장단과 노회들의 의견을 모아 화상회의제도를 공식회의로 도입 결의한 바 있다.

뉴욕노회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63회 정기노회가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열렸다.

개회예배는 인도 주영광 목사(부노회장), 기도 김진성 장로(부노회장), 설교 노성보 목사(노회장), 축도 임선순 목사(전 노회장), 광고 김성은 목사(서기)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노성보 목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행3:1-10)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고 힘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목회하고 서로 사랑하는 총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고 말씀을 전했다.

뉴욕예일장로교회는 팬데믹을 맞아 후원비로 5천 달러를 지원해 5개 교회에 전달했다. 또 지교회 노회 상회비 50% 탕감을 결의했다.

노회 책자에 명시된 시찰회 소식에는 팬데믹 후 낮은 출석 교인과 헌금감소 현상이 보고됐다.

회무 처리를 통해 △뉴욕예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 장로 6인 증선 △뉴욕신일교회(박맹준 목사) 교회장소 이전 △뉴욕영락교회(최호섭 목사) 교회장소 이전 등을 다뤘다.

동북노회

동북노회 35회 정기노회가 9월 14일 오후 5시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열렸다.

개회예배는 사회 최명혜 목사(부노회장), 기도 정연오 장로(부노회장), 설교 박용진 목사(노회장), 축도 오영관 목사(직전 노회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저지노회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노회장 정창문 목사)는 9월 15일 오전 뉴저지장로교회(김도완 목사)에서 제 63회 정기노회를 열었다.

교회 대표들만 참가한 가운데 개회 성수인원 정도만 참가했으며, 위원회 모임은 온라인으로 이미 모두 마쳤기에 오전에 보고형식으로 마치고 폐회했다.

뉴저지노회는 팬데믹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지교회들에게 5천 달러를 지원했다. 외부적으로는 팰리세이드 파크 이웃을 위한 무료식사 제공 봉사에 5천 달러를 지원했다. 또 뉴저지장로교회와 뉴저지초대교회가 기탁한 팬데믹 특별 기금으로 노회내 어려운 교회를 위해 지원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한 지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노회비를 50%만 납부하도록 조정했다.

목회규례위원회가 청원한 회원자격과 노회활동 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임원회가 청원한 노회회관 관리, 매각 및 재구입을 위한 노회회관 이전추진위원회 구성안은 대회로 보냈다.

또 △뉴저지장로교회(김도완 목사) 박찬 목사 시무 사임 청원 △뉴저지초대교회(박형은 목사) 장로 4인 증선 청원 △코넬한인교회(하홍표 목사) 장로 1인 증선 청원 △프린스톤연합장로교회(정창문 목사) 장로 1인 증선 연기 청원 △뉴저지명성교회(서경석 목사)가 청원한 교회주소변경 청원 등을 처리했다.

목회규례위원회가 청원한 회원자격에 대한 개정안은 목사 정회원 자격제한을 강화하고 △정기노회 결석시 사유서 제출 △노회비 3년 체납시 정회원권 정지, 노회비 완납시 정회원권 회복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노회불참시 정회원권을 정지시키고, 3년 이상 노회불참시 노회에서 출석 2/3 가결로 제명 처리한다. 단 2회 연속 노회참석시 정회원권을 회복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또 지교회가 2년 이상 공예배로 모이지 않을 경우 교회는 자동 폐쇄하기로 했으며, 기관목사도 3회기 이상 노회에 사역보고서 미제출시 기관목사 회원권을 정지하기로 하는 등 회원자격을 강화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정기노회가 줌으로 진행됐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제37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임원 전원 유임, 3명 회원가입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제37회 정기총회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제37회 정기총회가 9월 15일 오전 퀸즈침례교회(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지방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현 회장단 및 임원들을 한 해 더 유임하기로 만장일치 통과했다. 임원은 △회장 박춘수 목사 △부회장 김레너드 목사 △총무 신은철 목사, △서기 안승백 목사 △회계 한필상 목사.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1차 교회 긴급지원으로 2교회에 2천 달러와 2차 지원으로 6개 교회에 3천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그동안 비대면 모임을 가져오던 지방회는 뉴욕지역에 코로나19 영향력이 쇠퇴해지자 6월 23일 지방회 정기모임을 대면으로 뉴욕한신교회에서 열었다. 8월에는 목회자가족수양회 대신 당일 미네와스카 주립공원으로 팬데믹 위로여행을 다녀왔다.

2월 임시총회에서는 준회원 제도를 도입해 회원자격을 확대했다. 6월 지방회에서는 복음과영성교회(이태진 목사) 지방회 가입 승인, 3인(최은종, 안병재, 박철) 목사를 준회원으로 영입했다.

한편 2003년부터 이어져온 청소년연합수련회 "Challenge"는 팬데믹으로 하지 못하게 됐지만 계약금을 내년으로 돌리고 내년을 기약했다.

뉴욕한인지방회는 현재 17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황성주 세미나를 마치고 현장참여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코로나19 면역관리는 '부활신앙'으로

2020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황성주 세미나

2020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둘째 날인 19일 오전 10시부터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강사 황성주 목사는 전날 저녁 집회의 남은 내용을 이야기한 후 제목인 "코로나19 시대의 면역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황 목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신다. 코로나19의 특징은 어린이 청소년이 피해가 적고 고령층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인체 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코로나가 준 선물은 면역의 중요성을 알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목사는 코로나19 특징과 주요감염 경로 등을 설명하고 면역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하면서 "면역약화는 스트레스에서 온다"며 "바이러스 수비가 마스크, 손씻기, 거리두기라면, 공격은 건강식생활, 운동, 자연산책, 감사, 수면, 성경 및 좋은 책 읽기, 사랑하고 웃기 등"이라고 말하고 "초대교회 부활신앙으로 지혜로운 면역관리를 함으로 담대함을 갖고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회 하루 전인 17일 뉴욕에 도착한 황성주 목사는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뉴욕 한인사(교)회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다. 1세대가 다시 일어나 야성을 회복하고 차세대에게 꿈과 도전을 줘야 한다"며 "지금 세계 복음화의 시점에 와 있으며 첨단미디어로 플랫폼이 형성돼 있다. 기존 예배 방식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본질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 같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1세에게는 은혜를 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2세들은 미국사회 전체 플랫폼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총무 이창종 목사 인도로 찬양 안경순 목사, 대표기도 권캐더린 목사, 특송 이요한 집사, 강사소개 양민석 목사, 강의 황성주 목사, 특송영상 뉴욕장로연합성가단, 광고 김신영 목사, 축도 윤세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 신임소장 선임

한인가정상담소 신임 소장(Executive Director)에 캐서린 염(Katherine Yeom) 전 부소장이 임명됐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8월 1일부터 캐서린 염 임시소장(Interim Executive Director) 체제로 운영해왔다. 그 사이 한인가정상담소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장 후보자들을 검증했으며 지난 4일 캐서린 염씨를 소장으로 최종 낙점했다.

염 신임소장은 2009년 한인가정상담소 어린이 영양프로그램 매니저를 시작으로, 개발(Development)팀 매니저를 거쳐 지난 2016년부터 부소장직을 맡았다. 이후 소장 공석 한 달 동안 소장대행직을 맡으며 한인가정상담소를 운영했다.

캐서린 염 신임소장은 "지난 37년간 한인가정상담소가 해온 것처럼 이민사회에서 소외된 한인 가정을 위해 힘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인가정상담소를 키워 한인커뮤니티를 더욱 성장시키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캐서린 염 신임 소장

낸시 박 이사장은 "염 소장이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지난 1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 한인가정상담소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염 소장은 UMBC에서 생물학 학사, USC에서 교육학(Teaching) 석사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 교육구 중고교 교사, 한국 파주의 경기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2009년부터 한인가정상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뉴욕그레잇넥교회에서 열린 마이클조 선교사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살리기 운동 IM선교회 소개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마이클조 선교사 세미나

2020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강사인 마이클 조 선교사의 세미나가 대회를 마친 다음 날인 21일 오전 10시 뉴욕그레잇넥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마이클 조 선교사는 자신이 세운 IM선교회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며 세미나를 인도했다.

양민석 목사는 조 선교사에 대해 "IM선교회 대표이며, IM국제학교 설립자이고, TCS 미국사립학교 설립자다. 한국에서 차세대를 세우느라 국제학교, 대안학교, 부모학교를 세워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이어 미국에서 국제학교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선교사는 IM선교회가 한국에서 다양한 차세대 사역을 하고 있으며 지역교회와 연결해 지역교회에 도움이 되는 선교회임을 강조했다.

IM선교회 캠프에 오는 청소년들의 뜨거운 반응이 화제가 됐다. 캠프에서 5시간씩 예배가 진행된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이는 은사중심적인 예배이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확실히 심어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 선교회 사역이 교회들의 환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IM선교회 사역은 국제학교를 통해 미국과도 연결, 확산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20)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청교도 정신 사라진 종교자유법 제정으로 종교다원주의 빌미 제공
제퍼슨의 이신론적 사상으로 정교분리원칙에 의해 참 기독교 버려

3)청교도(淸敎徒)의 나라 미국이 어떻게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화 되었는가?

청교도사상(Puritanism)의 나라인 미국이 왜! 성경적 가치(價値)와 윤리(倫理)를 상실하고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화 되었는가?

(1) 종교다원주의는 국교제(國教制)의 최악(最惡)의 부산물((副產物)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아이러니(Irony)하게도 국교제로 말미암아 생긴 최악의 부산물(?)이다. 왜냐하면 제1장 청교도의 개혁운동과 기원 및 배경에서 전술했듯이 로마카톨릭교회의 잔재(殘滓)가 남아 있는 국교회(성공회)는 영국의 국왕이 수장(首長)이었기에 영국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회 교인(教人)이 되어야만 한다. 만약 성공회에 가입(加入)하지 않고 타 교회에 가입하면 종교적 핍박(逼迫)과 사회적으로 불공정(不公正)한 대우(待遇), 심지어 순교(殉教)의 제물(祭物)이 되기도 했다. 특히 개혁적(改革的) 신앙(信仰)의 자유를 원했던 청교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했다. 이 독점적(獨占的) 국교제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新大陸)으로 오게 되는 결정적 원인(原因)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차별(差別)과 핍박(逼迫)이 동반된 종교 악법(惡法)이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에 이주(移住)한 청교도들이 이 국교제를 적극 반대(反對)했던 것이다.

드디어 1786년 '종교자유법(Bill for Establi-shing Religious Freedom)'이 통과(通過)되고, 최초(最初)로 자유헌법(自由憲法)이 제정(制定)된 것이다. 즉, 국가(國家)는 특정 종교(特定宗教)를 국교(國教)로 정할 수 없고, 특정 종교를 선호(選好)하거나, 특정 종교를 박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을 헌법에 명기(明記)한 것이다.

종교자유법은 그 당시에는 너무도 좋고 합당한 법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다양한 교파(教派, 성공회,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 등) 교인들로서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문제(問題)가 될 수 없었다. 그 당시 영국이 성공회를 국교로 두듯이 미국도 주에 따라 국교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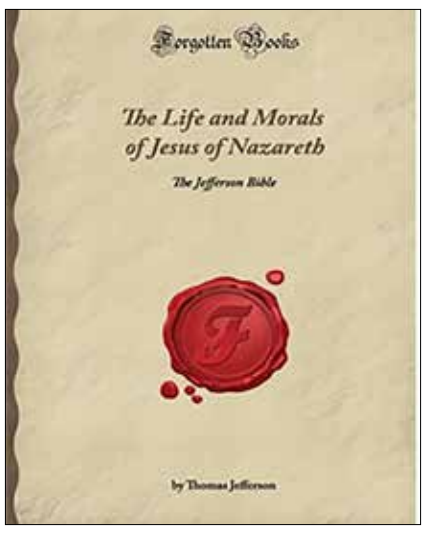
즉, 13개 주로 이뤄진 미국 연방을 운영하는 데에 기독교가 중추적(中樞的)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영국처럼 국교를 따로 두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상충(相衝)했던 것이다. 실제로, 메릴랜드는 가톨릭(Roman Catholic Church), 펜실베이니아는 퀘이커(Quaker), 버지니아/뉴욕/조지아는 성공회(聖公會)가 공식 종교였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진리는 위대해서 홀로 내버려둬도 승리한다. 우리는 성공회도, 가톨릭도 침례회도 아니다. 모두 크리스천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공화주의(共和主義)자들과 함께 국교제 폐지(廢止)를 주장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못 박았다.

그렇다. 그 당시 이주한 청교도들 대부분 다 암묵적(暗默的)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을 다 인정했기에, 굳이 국교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제퍼슨은 악한 의도(意圖)를 갖고 이신론적 종교관을 관철시킨 것이다.

즉, 이신론(理神論)을 신봉(信奉)하는 제퍼슨이 "우리는 …모두 크리스천이다" 라고 주장하는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 종교다원화의 위험(危險)을 간과(看過)한 채,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와 미국 헌법에 기독교적(基督教的) 조항(條項) 삽입(揷入) 없이 '종교의 자유법'이 명시(明示)된 것이다.

1890년경부터 새로운 다양한 이주민들이 동 유럽 등으로부터 미국에 대규모로 들어와 대도시에 정착(定着)하게 된다. 1차 세계대전에 즈음하여 미국 사회 각각의 영역에서 이주민(移住民) 집단들에 대한 반감(反感)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이민자들의 지위 (地位)는 상승(上昇)되었고, 그들이 함께 가져온 비(非)청교도적 성향(性向)이 확대(擴大)되었다.



성경의 기적과 예언을 부인한 '제퍼슨 성경'

그러므로 신분(身分)이나 교육 등에서 단순히 종교적 다양성(多樣性)으로만 인식(認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당연(唐硯)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초래(招來)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미국인들에게 개인화(個人化)를 더 더욱 촉진했다.

위와 같이 이민(移民)의 나라 미국이 되어, 타국인(他國人)들의 대량유입(大量 流入)과 그들이 믿는 다양한 종교에 대한 관용(寬容)과 활성화(活性化)로 말미암아 2020년 현재, 미국내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惹起)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정부의 간섭 없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잘 믿자" 라는 본래 취지(趣旨)의 종교의 자유법이 이신론자들과 무신론적 정치가들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Absolute sovereignty)과 청교도의 신앙과 사상을 반대하는 미국적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화라는 참담한 괴물(怪物)이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헌법적(憲法的)인 의미의 종교다원성이 용인(容認)되기 시작한 것이 미국에서부터라는 점에서 미국의 종교다원주의는 현대의 모든 종교다원주의의 본보기적 모델(model)로 여겨지기도 한다"(Berger P. L.,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p.135).

이 얼마나 참담(慘澹)한 평가(評價)인가! 순교적(殉教的)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신앙을 지키려고 이주한 청교도의 나라 미국이 종교다원화를 주도(主導)하는 국가로 변질(變質)된 것이다.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정반합(正反合, thesis,antithesis,synthesis)원리(原理)처럼 정(thesis)이 그것과 상반(相反)되는 반(antithesis)과의 갈등을 통해 정과 반이 청교도 본래 취지와 맞는 합(synthesis)으로 조정(調停) 되어야만 했다.

즉, 청교도들은 정(正, 국교제)에 대한 반(反, 종교자유법)으로 나온 것이기에 합(合, 대전제로서 미합중국은 기독교국가)으로서의 명문화(明文化)가 절대로 필요했다.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憲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된 것과 같이 미국 역시 광의(廣義) 개념으로서 모모한 종교의 자유가 아닌 정확히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는 종교(교파) 선택(選擇)의 자유"와 "미합중국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설립(設立)된 기독교 국가다"를 헌법 제1조에 명문화(明文化) 했어야만 했다.

(2)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화는 이신론자 토마스 제퍼스의 철저한 의도(意圖?)였다.

결국 청교도들은 오직 국교제에 대한 상한 감정(感情)과 피해의식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참 근시안적 시각과 그것을 역(逆) 이용한 정치가요 대표적 이신론자였던 제3대 미합중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주도하에 하나님만 섬기는 청교도의 나라가 아닌 모든 타종교 심지어 이단(異端)까지도 인정(認定), 수용(受容)하는 종교다원주의' 국가로 만든 것이다.

1820년에 출판한 "The Life and Morals of Jesus of Nazareth, 나자렛의 예수의 삶과 도덕" 즉, 토마스 제퍼슨 성경(聖經)이 바로 그 결정적 증거(證據)가 된다. 그는 예수의 신성(神性)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모조리 잘라내고 육하원칙과 시간적 연대상에 맞게 이야기를 재배열한 후 순수히 인간(人間)이자 도덕론자로서의 예수의 인생을 묘사(描寫)한다. 여기서 천사, 다윗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왕 계보, 예언, 기적이라든지,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구절, 예수의 부활과 같은 이성과 논리적이지 않은 초자연적(超自然的) 현상들을 모조리 삭제(削除)했다.

특히 '제퍼슨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장소에 정원과 무덤이 생겼으며 예수는 그 무덤에 묻혀 잠들었다'로 끝난다. 즉 제퍼슨은 예수님의 부활(復活), 승천(昇天), 재림(再臨)도 부인(否認)한 신성모독(神聖冒瀆)의 이신론 종교인이다.

그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뺀' 사악(邪惡)한 범죄자(犯罪者)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기초(起草)한 미국 헌법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주(創造主) 하나님, 삼위일체(三位一體)의 하나님, 인격적(人格的)인 하나님이 아니었다. 미국 건국(建國)의 아버지들 중에 제퍼슨처럼 이신론자들이 많았다. 이신론(理 神論, Deism)은 17세기 계몽주의(啓蒙主義) 시대에 만개된 신학사상으로 초월적(超越的)인 신의 존재를 인정(認定)하되 그 분은 이 세상을 창조(創造)한 뒤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세상에는 더 이상 개입(介入)하지 않는 분으로 믿었다.

흔히 자연신교, 이성종교라고 알려진 이신론자들은 성경의 기적(奇蹟)이나 예언(豫言)은 믿지도 않고 삼위일체도 부정한다. 계시와 기적을 부정하니까 종교라고도 할 수 없다.

제퍼슨은 이런 말도 했다.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童貞 女)로부터 예수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테나(Athena)가 제우스(Zeus)로부터 태어났다는 우화(寓話)와 같은 수준으로 여겨질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이다." 즉, 동정녀 탄생은 우화에 불과(不過)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렇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인 현재, 그 불순(不純)하고 사악한 의도(?)가 있던 그 '종교의 자유법'이 부메랑(boomerang)이 되어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 "오직 그리스도"(Christ Alone)가 아닌 역(逆)으로 하나님을 제거(除去), 추방(追放)하는 반기독교, 반성경적 정책(政策)을 세우는 확실한 법적 근거(根據)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교분리(政教分離), 즉 종교(宗教)의 자유법(自由法)으로 말미암아 미국 내에서 영혼구원(靈魂救援)과 전도(傳道), 선교(宣教) 활동에 족쇄(足鎖)를 채우는 무자비한 공권력(公權力)의 수단(手段)이 된 것이다.

kimjoyh@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I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ax.(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10시-오후4시30분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 배 : 오전 9:45(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핌(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ulul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예장합동 총회장에 소강석 목사 추대

교단 사상 첫 온라인총회, 부회장에 배광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은 21일 제105회 정기총회를 사상 첫 온라인 화상총회로 개최했다.

총회는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를 본부로, 전국 35개 거점교회를 화상총회 현장으로 마련해 진행됐다. 오후 2시 개회예배 직후 가진 임원 선거에서 신임 총회장에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추대됐다. 15년 전 제90회 총회에서 예장합동과 예장개혁이 교단 통합을 이룬 뒤 예장개혁 출신 목회자가 교단 총회장에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 목사는 취임사에서 "장자교단인 예장합동의 총회장으로서 총회 발전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밑거름이 되겠다"며 '총신 정상화' '총회 본부 내 코로나 위기대응팀 설치' '총회 유튜브 채널 개설 및 디지털행정업무 추진' '창조적 정책 마련을 위한 미래전략발전위원회 상설화' 등 7가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배광식(울산 대암교회) 목사, 서기와 회계에는 김한성(서울 성산교회) 목사와 박석만(수원 풍성한교회) 장로가 각각 당선됐다. 경선을 치른 장로 부총회장과 부회록 서기에는 문자투표를 통해 각각 송병원(늘사랑교회) 장로, 이종철(두란노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임기 3년의 총무에는 고영기(상암월드교회) 목사가 1014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각종 위원회 보고와 300여개의 헌의안을 다뤄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원회 보고는 총대들에게 전달된 서면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청원 내용은 임원회로, 재정은 재정부로 이관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각각 '이단 옹호자' '이단옹호기관'으로 보고했으며 총회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예장합동, 목사 늘고 교회·성도 감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총회에서는 지난 1년 사이 교단 소속 목사만 늘어나고 교회와 성도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장합동 105회 총회 보고서에 기재된 교세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교인은 전년 대비 10만 584명 감소한 255만 6182명(-3.8%)으로 집계됐다.

지난 104회 총회(-1.2%)와 103회 총회(-2.7%)와 비교해 3년 새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2년 교회도 127개 줄어 1만1758개(-1.1%)로 보고됐다. 반면 목사는 지난해 2만4395명에서 460명 늘어 2만4855명(1.9%)을 기록했다. 직분별로도 강도사(-7.2%) 전도사(-0.5%) 장로(-1.4%)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예장통합 총회장에 신정호 목사 선출

교단 사상 첫 온라인총회, 부총회장에 류영모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108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를 열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제105회기를 시작했다.

예장통합은 21일 서울 도림교회(정명철 목사)를 포함해 전국 38개 교회에서 노회별로 흩어져 총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회의를 진행했다.

신정호 전주 동신교회 목사가 제105회기 총회장 직무를 시작했다. 신 총회장은 에스라 10장 1절과 사도행전 3장 19-21절 말씀에 기반해 제105회기 주제 성구이기도 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 총회장은 "코로나19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사회적으로 교회공동체가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아픔도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고백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이란 점"이라며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와 교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내년 9월 총회장직을 자동 승계하게 되는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류영모 파주 한소망교회 목사가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 재석 1461표 가운데 찬성 1246표, 반대 215표였다. 류 부총회장은 "공적 복음을 세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참신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박한규 부산학장제일교회 장로가 선출됐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연구를 제105회기로 이첩해 1년간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 목사에 대한 이단·사이비성 여부 심의 요청 건이 다수 상정돼 있는데, 신학적 교리적 성경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서리집사도 내리 감소

교회의 평균 규모가 줄고 있다. 교회 수는 소폭 증가하지만 교인 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교회 1곳당 평균 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교회의 일꾼인 서리집사의 비율도 10년째 내리 감소하고 있다. 교회의 여러 사역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은 21일 열리는 제105회 총회를 앞두고 지난 10년간 교세 통계를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에 제공해 분석한 컨설팅 보고서를 공개했다. 예장통합의 경우 세례 교인 수 및 예·결산 규모 등을 지교회가 직접 중앙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통해 상회비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예장통합의 교세 통계는 여러 교단 통계 가운데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교회 전반의 추세를 설명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교회 한 곳당 평균 교인 수를 산술 평균이 아닌 '중앙값'으로 구한 결과 2010년 교회 1곳당 72명이던 교인 수는 2019년 51명으로 줄었다. 교회는 1만명 넘는 초대형교회부터 갓 개척한 초소형교회까지 교인 수의 편차가 크다. 이 때문에 전체 교인 수를 전체 교회 수로 나누는 산술 평균을 하면 초대형교회의 영향이 커 평균값이 현실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중앙값이다.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교회부터 가장 적은 교회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9년의 경우 정중앙에 교인 수 51명의 교회가 있다는 의미다. 통합 교단의 9000여 교회 가운데 교인 수 51명 이상인 곳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51명 이하라는 뜻도 된다.

교인 규모별 교회 수 비중의 10년간 증감 폭을 살펴보면, 101-300명 중형교회는 2010년 22.6%에서 2019년 19.0%로 3.6% 포인트 줄었다. 반면 30명 이하 초소형교회의 비중은 같은 기간 23.8%에서 33.8%로 10.0% 포인트 증가했다. 중형교회의 비중 약화, 초소형교회의 증가가 확인된다. 보고서는 "교회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의 일꾼과 헌금이 줄어 교회의 여러 사역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재정 지출 및 사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리집사의 제직 대비 비율도 10년째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 직분자를 총칭하는 제직 수는 86만9830명이며 이중 서리집사는 58만1000명으로 66.8%를 차지했다. 2010년 73.3% 비중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보고서는 "서리집사는 교회의 일꾼이면서 항존직 후보들이어서 서리집사 감소는 교회 사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교회 수와 목회자 수는 소폭 증가하지만, 곧 정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여성 교역자 비중은 앞으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성 교역자 비율은 2010년 17.9%에서 2019년 20.4%로 2.5% 포인트 늘어났다.

기감, 연회 감독·감독회장 후보자 접수

내달 12일 미국 등 12개 투표소에서 선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22-23일 연회 감독과 감독회장 후보자를 접수하고 다음 달 12일 미국을 비롯한 12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연회 감독 12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각각 2년과 4년이다.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 일정과 방법 등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엄정한 서류 심사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후보자들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게 확인돼야 정식 후보자격을 얻는다. 그전까지는 예비 후보다. 예비 후보들은 정식 후보로 확정될 때까지 기감 본부 근처에 대기해야 한다. 미비 서류를 빠르게 보완하기 위해서다.

연회별 투표 장소는 서울연회 종교교회, 서울남연회 대림교회, 중부연회 계산중앙교회, 경기연회 성광교회, 중앙연회 선한목자교회, 동부연회 연회본부, 남부연회 연회본부, 충청연회 연회본부, 삼남연회 연회본부·제주중앙교회, 호남특별연회 연회본부, 미주자치연회 사랑의교회이고 충북연회는 미정이다.

'동성애 옹호' 논란 부천시 인권조례 통과

교계·시민단체, 시의원 주민소환 등 폐지운동

동성애 옹호 논란을 빚어 온 경기도 부천시 인권조례안이 21일 통과됐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조례폐지운동을 펴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이날 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연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8명 중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이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와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단체는 이날 부천시의회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의회에 조례안 입법 전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며 졸속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해부터 반대해 온 해당 조례안을 놓고 수차례 시의회 측에 주민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로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이를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윤문용 부기총 사무총장은 "조만간 장덕천 부천시장과 면담을 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조례안 통과에 찬성한 시의원을 상대로 주민소환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명혜 시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지역 내 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조례안에 국가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 문구 등 동성애 옹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들어있고, 인권센터를 통해 편향된 인권 논리를 공직사회에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전국 1만개 교회에 복음 실은 광고를…

예장통합·복음의전함 업무협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전도가 어려워진 시대,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비대면으로 감당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전국 1만개 교회의 외벽과 교회 차량 등에 복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은 17일 서울 종로구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총회장실에서 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서는 "코로나19로 전도가 어려운 비대면 시대에 상호 협력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상호 교류·협력할 것, 구체적 협력 사안은 협의로 결정할 것, 협약 기간은 1년이며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될 것 등을 규정했다.

김태영 총회장은 협약식에서 "꽃향기는 십리를 가고(花香十里) 묵향은 백리를 가며(墨香百里) 인덕은 천리를 가고(德香千里) 복음은 만리를 간다(福香萬里)"면서 "이번 협약으로 비대면 시대 복음의 향기가 만리까지, 가랑비에 옷 젖듯 널리 널리 퍼져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민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달이 막혀선 안 된다"며 "교회의 버스 등에 복음광고 현수막이 부착될 수 있도록 교회 이름을 넣은 파일 등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기총 후원이사장에 김희선 장로 선임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9월 11일 8-2차 임원회로 모여 후원이사장 김희선 장로(사진)선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부 예배는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하여 상임회장 유영식 목사의 기도와 "단 3:18"의 본문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주제로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설교가 있은 후 초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순서를 마쳤다.

설교에서 조일래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이때에 교회가 힘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먼저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어려운 난국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부 회의는 15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사회로 진행돼 김희선 장로에 대한 후원이사장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어 세기총 부설기관으로서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반대 천만인 서명운동본부와 그 사무처를 가결 허락했다.

신임 후원이사장 김희선 장로는 인사말에서 "귀한 단체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미력하나마 750만 디아스포라 해외동포 및 선교사들을 섬길 것이며, 나아가 한국교회와 사회가 당면한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과 세기총의 모든 활동에 힘써 동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기사제공: 세기총〉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눈물 한 방울

태풍 마이삭이 막 지나갔다는 재난방송을 보다가 이어진 아침 프로의 생방송을 보았다. 시청자 코너에 방송인들이 나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나운서가 된 계기를 소개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대학 4학년 때 어려운 이들을 돕는 방송을 우연히 보았는데 진행하는 MC의 눈에 고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맺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백천 마디의 말보다 공감하며 흘릴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되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며 아나운서가 되었다는 소개를 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게 흘러간다. 특정한 소외계층이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엄습한 코로나19 때문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우한바이러스로 불렸으나 발원책임을 나라나 지역에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코로나19(COVID 19)로 명명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다. 8개월여 만에 전 세계에는 수천만 명의 확진자와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으로 동서를 막론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은 채 전파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객관적인 통계 속에는 주관적인 어려움과 고통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소연해도 부족할 정도의 사연들이 넘쳐난다.

코로나19가 속히 끝나지 않고는 내일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존의 한숨이 태풍의 강한 바람처럼 너나 없는 가슴들을 강타한다. 소외된 이들의 처절한 상황이 안타까워 MC가 흘린 한 방울의 눈물이 보는 이들을 감동시켜 많은 이들이 돕는 손길을 보태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두가 다 어려운 전방위적 위기상황에 처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선진국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인심은 곡간에서 나온다. 곡간이 비면 나눌 것이 없고 소외된 이들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미국과 같은 부잣집 곡간마저 비게 된다면 소외된 이들에겐 비빌 언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것을 끄는 것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이를 뛰어넘는 속담이 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다. 먹을 것이 남아돌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도 모자라지만 그 모자란 것도 나눈다는 인정이다.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한다. 어쩌면 내일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촉구며 도리가 아닐까 싶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직격탄 상황은 대다수의 사람과 기업에 극심한 고통을 안기고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남다른 부를 축적하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어려운 곳에 자신의 넉넉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방울의 눈물일 것이다.

사실 인심이나 인정은 어려울 때 더 빛나는 가치다. 어려움은 또 금전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배신과 이별, 질병과 재난, 실패와 좌절 등의 심리적인 요인에 더 필요한 것은 관심과 배려, 위로와 공감일 것이다. 이때 같이 손을 맞잡고 흘려주는 한 방울의 눈물은 천군만마와 같은 응원이 되고 살아야 하는 이유로 다가설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이며 삶이다. 무엇보다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력이 된다.

글로벌은 이해득실을 가릴 때 사용되기보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용을 전제한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백신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힘 있는 나라들이 과연 글로벌을 언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설사 차갑게 식어버린 인정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더 따뜻하게 덥힐 수 있다. 이는 기독교의 책임이며 의무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민에게 시원한 음료를 건네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자 '예수 믿으면 코로나 걸려요'로 화답했다는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앓이가 아픔으로 다가온다. 이런 세상의 불신과 몰이해를 되돌리고 회복하기 위해 성도와 교회가 흘려야 하는 진심어린 한 방울의 눈물이 절대 필요하다.

기독교와 교회가 코로나19와 태풍·장마 등의 자연재해, 소외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흘릴 수 있는 한 방울의 눈물은 치료와 회복뿐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가장 진정한 눈물일 것이다. 공감하며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을 내가 흘려야 되겠다.

hanmackim@hanmail.net

"우울증과 영적 처유" (25)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제 7장 우울증에 대한 영적 처방

문제 알아보고 문제해결 관련 말씀 찾아 기도하기
치유 첫 단계는 회개...능동적 태도, 영적멘토 찾기

1. 하나씩 아픔을 극복하기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당혹감을 느낄 때에는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찾으라. 다음에 제시할 훈련을 당신의 마음을 맑아지고 평안과 치유를 찾도록 도와준다.

적용: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지 알아보라: 용서하지 못함, 분노, 괴로움, 증오, 또는 상실로 인한 슬픔, 절망의 영 등.

회개: 회개는 당신의 치유 과정의 첫 단계이다. 하나하나, 당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 당신이 영적 억압에 시달린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고 부지불식간에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결케 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영적 싸움에 대적할 힘을 얻게 된다. 그 정결한 마음이 당신의 죄를 회개한 결과물이다.

회개는 당신을 겸손하게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4:8-10).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시5:12).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힘쓴다면, 당신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로마서 8:31-35에 기록하고 있다.

상실과 관련된 정서적인 고통으로 슬퍼하는 사람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후에,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

기도: "주 예수님, 슬픔에 빠진 저를 도우시어 치유 받게 도와주세요. 저의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께 보내 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욕망을 없애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저의 사랑과 주의가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탐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여 당신이 고통이나 혼돈에 빠지지 않게 지혜를 준다.

과정: 기도와 고백을 통해 고통을 처리하고 문제와 이슈를 돌본다. 다른 사람과 당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상처와 고통 받는 부분을 돌볼수록 더 많은 평안을 얻어 압도당하지 않게 된다.

기도: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막4:40-41).

집중: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는 데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라. 긍정적인 것과 주님께 받은 축복에 집중하라.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가에 관해 배울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43:2).

발견: 이 싸움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걸으며 고통을 경험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만일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없다면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하고 영적인 멘토를 찾을 수 있게 주님께 구하라. 긍정적인 사람과 교제하여 당신을 위한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반복: 아직도 부정적 정서에 싸여서 고통 받고 있다면, 문제를 떨칠 수 있을 때까지 위의 훈련 방법을 반복해서 실시하라.

다음 회에는 당신이 가진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예를 소개하겠다.

yonghui,mcdonald@gmail.com

코로나19 투병기

코로나 쓰나미가 지나간 벌판에 서서...

황순원 사모
(CMF선교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을때만해도 그러다가 지나가겠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확진자가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늘어가고 마스크, 거리두기, 영상예배, 거리에 사람들이 뜸해지고 모두 가정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의 위력이 이렇게 큼을 새삼 느끼며 익숙하지 않은 현실을 적응해왔습니다.

어느 날 목이 따끔하면서 기침이 날 때만 해도 감기겠지... 오후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할 때만해도 그러다가 내려가겠지.... 그래도 혹시나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양성판정이라는 말에 여느 때 같으면 심장이 뛰고 정신이 없을 텐데 너무 큰 충격이어선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6월 26일 코비드19 양성판정을 받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열, 심한 가래, 온몸에 알 수 없는 통증, 구역질과의 투쟁 속에서도 "그래도 먹어야 산다" 생각하고 일어나려해도 일어날 수 없어 침대에 누어서 한 숟갈의 밥을 입에 넣고 씹어 삼키려 할 때마다 바이러스들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을 느낄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소식을 듣고 좋은 약이나 식이요법들을 알려주었지만 하나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주는 정보들조차 나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조차도 약이 없다고 타이레놀이나 먹고 쉬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았습니다" 이런 소식들도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나를 예기치 못한 혼수 속에서도 건지셨던 그 손, 심한 출혈로 응급실행을 하던 그 속에서도 살리셨던 바로 그 손. 이 손만이 밤바다 순간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시려고 내 침상 곁에 함께 누워 나를 안아주시던 그 손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고열과 진통으로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고 나니 에너지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20여년전 간경화증으로 간 이식 대상자로 준비하고 있다가 전능하신 의사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간 이식 대상자에서 밀려나와 회복되어가는 중에 아직은 면역력이 충분하지는 않고 고혈압과 당뇨라는 기저질환을 가진 자입니다.

외출도 금하고 철저히 위생을 지켜왔기에 저에게는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던 사실이 현실로 닥쳐왔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외쳐오던 나에게 왜 또 "이런 일을 하실까?"

죽음의 선상에서 오락가락할 때마다, 갑작스런 남편의 소천 앞에서 오열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고 결국에는 날개도 달아주시더니 오지에서 힘겹게 사역하시는 사모님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공중을 날아 이곳저곳을 다니게 하시던 그 좋으신 분이 이번에는 "코로나가 웬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를 기대하면서도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신 주님과의 밀회를 하는 시간들은 더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건강할 때에는 결코 느껴볼 수 조차 없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제힘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때는 주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을 주의 힘이 아니면 그 어떤 동작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에 직면할 때에야 비로소 만나볼 수 있는 주님이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도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견디거라 내가 너 곁에 있을게" 수없이 속삭여주시는 주의 음성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2주가 되는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잘 넘어가는 것을 느끼자 체온도 정상, 산소량도 정상수치로 오르고 가래와 기침도 사라지자 아 이제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물러가는구나 느끼며 감사하고 있는데 체중이 더 줄기 시작하고 기운은 어제보다 더 없어져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바이러스가 없어졌으면 정상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후유증과 부작용이 따라올 수가 있다고 하는 말에 넘어야할 고비가 아직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에너지가 더 없어지는 것이 그 어떤 고통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와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에서 기운은 다 빠져나갔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죽을힘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요, 누워 있을 힘조차 모두 빼앗긴 고통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외면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부르짖는 소리가 온방에 가득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견디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나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일단 말입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워 더 이상 견딜 수 없더니 어느새 단잠이 들었습니다.

에스겔47장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내게도 흘러들어오더니 가슴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광경을 보여주시며 " 너와 접촉하는 이들마다 생명이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느새 내 몸에서는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아버지는 그토록 원하시는 생수의 강물로 나의 뱃속을 가득 채우시고 " 주께서 두고 가신 기쁨"을 선물로 푸짐하게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 검사결과로 음성 판정!!! 항체까지 생김!!! 떨리는 심장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은 채 7월의 막을 내리기 전날인 30일 오전!! 받은 기쁨을 기도의 동역자님들과 나누기를 원하여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항체는 아무나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지금 건강한 청년들도 항체가 생기지 않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점점 늘어나 병원에서 혼수로 사선을 넘나드는 분들의 소식이 이어질 때마다 새로운 감사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전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속히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모님들 중에 왜 하필 황 사모님이 걸렸나요?" 의아해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자로서 여러 가지의 기저질환을 가진 자를 고르시다가, 가장 취약한 조건에 있는 여인, 그 어떤 약도 복용할 수 없는 조건인 여인을 골라 뽑으신 것이라고.... 그러기에 순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역히 드러나게 하고 싶으신 창조자 그분의 또 하나의 작품이라" 고 담대히 외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LA 본부 CMF 선교원 가족들을 비롯하여 LA에이레네, 달라스 에이레네 사모님들과 세계로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사모님들의 생명을 짜 받치는 기도의 힘, 사선의 고비 고비마다 넘게 했던 힘은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했음을 절실히 느껴봅니다. 피흘림의 희생적 중보기도가 없이는 기적의 축복은 누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기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각처에서 사랑의 소식들을 전해주시고 음식을 공급해주시느라 수고의 땀을 흘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투병하고 있는 자들에게와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온 지구촌에 공포와 염려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기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누리교회 드라이브인 패밀리워십

6개월 만에 온 가족 함께 교회주차장에서 예배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과 11시30분 예배를 드라이브인 패밀리워십으로 드렸다.

본 교회는 그동안 가주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이후 온라인생방송예배를 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영적 거리 좁히기 운동"을 계속해온 새누리교회는 6개월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교회가 위치하고 산호세 인근 마운틴뷰 시청과 협의해 주일 2부와 3부 두 번에 걸쳐 드라이브 인 패밀리워십을 드리게 됐다.

이날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기도 그리고 3명의 교육부 전도사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히10:23)이라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했고 이어서 폴 전도사가 중고등부에게 'Your Thinking Be Holy'(벧4)라는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경일 담임목사가 '보고 배운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신4:10)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히 이날 헌금은 6개월 만에 교회 주차장 땅을 밟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금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새누리교회〉

새누리교회는 드라이브인 패밀리워십을 개최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재림 주님의 모습(계1:7-8)찬167장

요한이 받은 계시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친히 오심으로 모든 구속을 완성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첫째, 구름타고 오십니다(7). 승천하실 때 구름타고가신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모든 성도가 함께 임하는 상징주의입니다. 둘째, 각 사람의 눈으로 보게 오십니다(8). 요한은 재림의 주님을 개별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최대의 실감을 갖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모든 족속이 그를 보나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가슴을 치며 받을 형벌을 바라보고 울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모든 족속 중 불신자들은 지옥형벌로 인해 애곡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8). 높이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 더 분명해지듯이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이 세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화 밧모섬에 격리된 요한(계1:9)찬383장

그리스도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란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은 왜 밧모섬에서 격리생활을 합니까? 첫째,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형제라고 하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 관계를 가진 자로서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였습니다. 둘째, 그가 귀양살이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던 이유로 박해를 받아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도 죽지 않자 그를 밧모섬에 귀양살이 하도록 보내어졌다고 알려집니다.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됩니다. 셋째, 격리된 생활 속에서도 신령한 복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하는 삶에서도 입을 넓게 열어 크신 은혜를 구합시다.

수 주의 날에 임한 은혜(계1:10-11)찬57장

고독한 생활 속에도 주의 날을 기념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 주의 날 곧 주일은 주님의 안식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10).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완성됐습니다. 주일성수의 복을 무시하는 이 시대 풍조와 맞서 싸워 어디서나 주의 날을 잘 지켜야합니다. 둘째, 계시를 기록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10). 모든 복의 원천은 계시를 앎에 있습니다. 셋째, 그 계시를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11). 재림과 관련된 일들과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승리를 알리는 계시는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하기 때문에 기록된 그 계시를 전해야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계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목 인자 같은 이I(계1:12-15)찬102장

그가 본 계시의 중심은 인자 같은 이 곧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로 부르신 것은 인성보다 신성을 강조합니다(단7:13-14). 그는 누구입니까? 첫째, 교회 사이를 왕래하신 분이십니다(12). 신자 개인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을 간섭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의와 거룩의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13). 오직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의의 왕십니다. 그 왕의 다스리는 교회는 어디서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셋째, 성결의 주로서 교회를 살피십니다(14). 양털과 눈과 같이 흰 머리와 머리털을 가지고 불꽃같은 눈을 가진 인자란 성결의 주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인자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인자 안에 거하기를 즐깁시다.

금 인자 같은 이 II(계1:15)찬94장

다시 인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 고난을 통과한 자로 나타났습니다(15). 풀무불을 통과할 때 단련한 주석처럼 많은 고난을 통과함으로 곡을 완성하신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 안에 있는 신자는 고난을 감사히 받습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순결자가 됐습니다. 불을 통해 견고한 주석이 된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순결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했습니다(눅9:23). 셋째, 전능한 말씀을 가진 분이십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렁찬 음성처럼 그의 모든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권세를 가지십니다. 교회는 그 음성을 듣고 겸손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토 인자 같은 이 III(계1:16)찬506장

앞서 말한 인자의 모습은 그의 성품을 표현한 것이라면 여기에 나온 그는 그의 사역과 관계된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첫째, 그는 일곱별을 가진 분이십니다. 일곱별은 주의 사자 곧 교회의 대표인 목사를 가리킵니다. 지상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사를 세워 그를 통해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둘째, 그는 성령의 검을 가진 분이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모든 일에 적용된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엡6). 그 말씀으로 교회는 시작되며 진행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셋째, 그는 은혜의 얼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해의 비췸처럼 그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과 보호를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은 인자의 권위 안에서 기이한 치료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코비드(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4)

교회본질 교육, 부모가 자녀영성교육 책임, 주일학교 커리큘럼의 변화: ①성경말씀 가르치기 ②시대정신에 대한 고민 ③성경적 리더십 교육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COVID-19은 교회학교 Paradigm Change를 요구한다

온통 걱정 뿐이다. 근심과 두려움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득 베어 나온다.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지난해 말, 그리고 올 연초만 하더라도 백신이 곧 나올 것처럼 얘기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는 더운 기온이 되면 전파력이 약해서 올 여름을 지나면서 생명을 다할 것으로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웬걸?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은 점점 더 심하게 번져가고 있다. 이제는 이곳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까지 퍼져가서 지구상 성치 않는 곳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치유되었다고 판정된 사람들도 계속된 증후 증세로 고통하고 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증후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서 잠재적 확진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 그뿐인가? 제2의 제3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뉴스는 우리를 공포 속에 있게 한다.

좋던 싫던 코로나는 이제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역사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구분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며 교회교육에 있어서 근원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절망에서 희망을 심는 교회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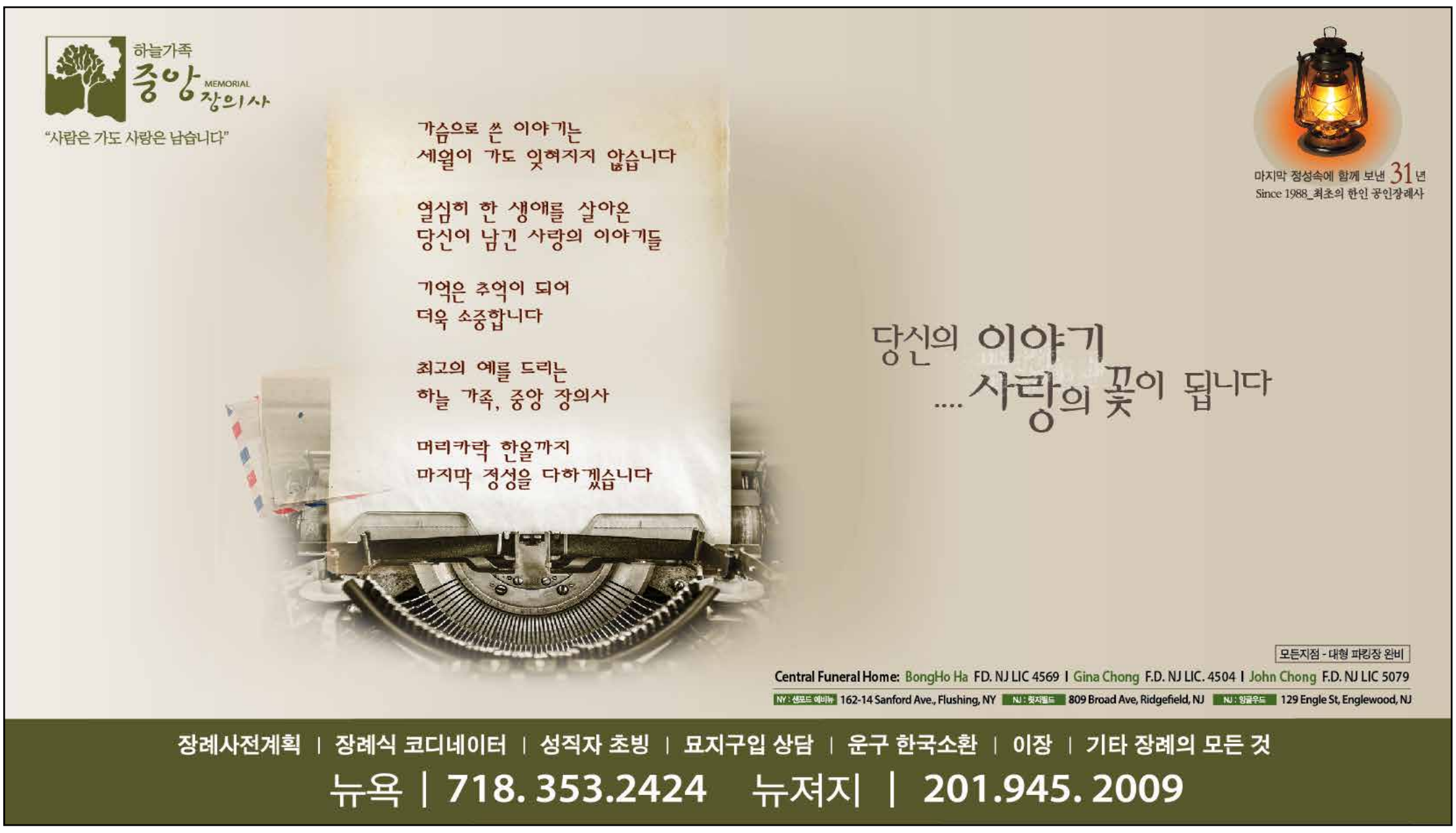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성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선민의식을 고양시켜준 기본전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감히 최대의 치욕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으며 이제 하나님은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견이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건설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70년의 포로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은 예전에 절망적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더 이상 아니었다. 그들은 신앙심으로 무장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크리스천의 군대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서 만나고 경험해야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첫째, 교회의 본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회는 곧 예배장소이며 예배는 곧 삶의 전부라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곧 신앙생활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영적생활의 패배자인 양 가르쳤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런데 교회의 기능이 예배뿐이던가? 교회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섬김과 구제공동체, 교육과 말씀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초대교회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고, 시장에서 모였고, 성전 뜰에서 모였다. 거기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고 성찬식을 거행했으며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고, 불신자들을 초대하여 말씀을 듣게 했고, 함께 형제애를 나누며 사랑했다. 그들이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았다고 해도 교회의 기능을 소홀히 하거나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슨 얘기인가? 교회 예배당을 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의 기능이 폐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교회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대면예배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모든 교회 기능은 더 강력하게 발휘되어야 하고 또 마련되어야 한다. 섬김과 선교, 친교와 봉사, 제자도, 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제공되어서 인생의 목적이 계속 채워지도록 기능해야 한다.

〈15면으로 계속〉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골다공증

체중부하 운동과 칼슘섭취로 예방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인생의 종점이라고 보던 60세 환갑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흔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질병들이 여성은 골다공증이고 남성은 전립선암이다. 두 질병의 공통점은 젊은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질환이라는 것과 그 발생빈도가 고령화에 정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은퇴한 60대 중반의 여성 박모씨는 두 달 전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은퇴 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박 씨도 막상 손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나니 골다공증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2개월 후 깁스를 풀고 박 씨는 의사를 찾아가 골다공증에 관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골다공증이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가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몸의 뼈는 출생 때부터 끊임없이 생성과 소실을 동시에 한다. 대개 30대 초반부터는 뼈의 소실이 생성보다 더 우세해 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긴다. 여성은 폐경 후 평균 5년 이내에 50%의 골 소실이 이루어진다.

폐경이 일찍 온 경우나 난소적출술을 젊은 나이에 받았다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노화로 인한 고환의 위축이 전립선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인종적으로 보면 백인과 동양인들은 흑인에 비해서 골다공증 발생이 많다고 보는데 유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동양인의 상당수가 우유를 흡수할 수 없는 유당불내성인 경우가 많아서 칼슘 섭취가 적고 타민족에 비해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골다공증 위험인자는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경우와 칼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 즉 유제품이나 신선한 채소 등을 먹지 않은 경우도 위험이 높다. 만성 천식환자가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우선 운동과 칼슘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조깅 같은 체중부하 운동이 중요하고 칼슘은 폐경기 후 일일 권장량이 1,500mg인데 1000mg은 정제로 섭취하고 나머지 500mg은 음식물로 보충하도록 한다. 또 칼슘을 복용하더라도 장에서 모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약물이 에스트로겐이다. 과거 30년 이상 복용되어왔고 한때는 '늙지 않는 약'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 유방암과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이 많이 줄었다. 시판되는 골다공증 약도 복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213-383-9388

〈14면에서 계속〉

둘째, 자녀의 영성교육은 부모의 책임임을 코비드 사태를 통해 명확하게 일깨워야 한다. 가정 제단을 쌓고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의무라는 것이다. 코비드19이 도래하자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과 원격 교육을 통해서만 학생들을 만나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은 친구들과 교실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교회 역시 비대면 중심의 예배와 성경공부가 주로 이루어짐으로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곧 자녀들의 일차적 교육책임이 학교 혹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곧 부모임을 알려준다.

결국 지금 이 시기는 부모들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 시기를 잘 살리는 부모는 자녀들의 지적, 사회적 및 영적 성숙을 함께 경험할 수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부모들은 이후에 자녀들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고통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

셋째, 코비드 19은 결국 교회 학교 커리큘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호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현재 주일학교 커리큘럼은 오로지 성경을 공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주일학교의 목표는 무엇인가? 아이들을 성경박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자질을 양성하는 것인가? 만약 후자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필자가 생각하기에 주일학교 커리큘럼은 3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성경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필자 역시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가를 고민하고 이를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르쳐야 한다. 각자가 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리더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교육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지난 호에서 구속 지향적 방향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hlee0414@gmail.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7. 행복한 가정의 7가지 열쇠

제 10회 평신도지도자 초청 세미나(1994년 4월 27일)에서 양은순 교수가 "신자의 성경적 가정생활"이란 주제 강연에서 제시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7가지 열쇠'를 '행복한 가정의 7가지 열쇠'란 제목으로 필자 나름대로 수정, 업데이트하여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1. 첫 번째 열쇠 '성숙'

남편과 아내가 육적으로는 성숙했으나,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부부간에 서로에게 죄를 전가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부부관계 회복이 급선무
복종과 사랑, 대화, 기도, 말씀, 예수그리스도

2. 두 번째 열쇠 '복종'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부부사이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을 때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종은 남편이 꼭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3. 세 번째 열쇠 '사랑'

하나님께서 남성을 흙으로 여성을 갈비뼈로 창조하신 것은 남성이 여성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있고, 그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가장 사랑스럽지 못할 때, 지겹게 느껴질 때 사랑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듯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4. 네 번째 열쇠 '대화'

최근 가장 큰 이혼사유는 대화의 부족입니다. 대화는 기술이 필요한데, 먼저 듣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양은순 교수는 부부간의 대화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천국방언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입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은 '사랑해요'라는 말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는 작은 것에 감동하기 때문에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가 부부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큰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가정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5. 다섯 번째 열쇠 '기도'

호흡이 없으면 육신이 죽듯이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가정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축복과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되어 기도하는 가정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는 귀중한 부분입니다.

6. 여섯 번째 열쇠 '말씀'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육의 양식을 섭취하듯 영의 양식인 성경말씀도 매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QT)과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정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7. 일곱 번째 열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가정이라는 배를 성공적으로 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정의 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근본이면서 마지막 열쇠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뉴 패러다임 목회와 선교를 위한

Dynamic pastoral leadership

목사, 선교사를 위한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Doctor of Leadership 48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60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636) 327-4645 usa@midwest.edu

'계획수립' 강력한 사전대처 방법 될 수 있다!

BBC, 팬데믹 확산 따른 불확실성, 계획 수립/시행으로 대응하는 노하우 소개

2020년 상반기는 팬데믹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심리학과 셰바운 노이퍼트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제가 생각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 볼 때 미래를 언제까지나 미뤄두는 건 쉽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 사이에는 강한 연결이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우울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이퍼트 교수가 공동 저술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로 이런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지어 그 계획이 헛된 것일지라도 말이다. 계획을 세우면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아준다. 결국 계획수립은 우리의 본성이다. 노이퍼트 교수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인간은 미래의 일을 계획하기 위해 많은 뇌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Why can planning help you manage pandemic stress?).

대응기제로서의 계획수립

계획을 세우게 되면 '사전대처'라는 인지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노이퍼트 교수는 여기에 "행동 구성요소와 사고 구성요소가 있다"면서 "행동적인 예로는 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것 등이 있고, 사고 구성요소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노이퍼트 교수는 연구를 통해 2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매일 스트레스를 탐색하는 방식을 9일 동안 추적했다. 사전대처에 참여한 사람들, 즉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며 잠재적인 어려움을 처리하는 방법을 예측하고 계획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덜 반응했다.

연구는 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됐지만 노이퍼트 교수는 이런 원칙들이 훨씬 더 긴 스트레스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노이퍼트 교수는 "계획수립이 강력한 사전대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달하게 될 미래가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고, 결국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그는 "자기 자신을 회복시킨다는 느낌을 주는 활동을 선택하라"고 제안한다. 이는 헤어숍이나 네일숍을 예약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한 달이나 두 달 사이 무작위로 날짜를 정해보는 것이다.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

노이퍼트 교수는 "이런 계획들은 매우 개인화된 계획경험이 될 수 있다"면서 "헤어숍을 가거나 심지어 헤어숍을 가기로 계획한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굳이 달력에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감정적 혜택들을 얻을 수 있다. 평범한 것에서부터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이르기까지 하고자 하는 활동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일정들을 세우고 싶어질 것이다.

노이퍼트 교수는 "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좋은 일에 대해 기대하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설명한다.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목록을 갖는 것만으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긍정적 기분 유지, 스트레스에 압도당하는 것 막아

도, 비록 그 일을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미완성을 싫어하는 이유

계획은 우리에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제공한다. 계획은 인지적 혼란을 처리함으로써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을 준다. 196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인지부하이론'은 인간의 두뇌가 특정시간에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정신처리모델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들을 성취하기 힘들어지면 결국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짊어지게 된다. 노이퍼트 교수는 완료될 수 없는 일들이 쌓여 우리의 짐이 된다고 설명한다.

바로 여기서 '자이가르니크 효과(미완성 효과)'가 일어난다. 1920년대 처음 이 효과에 대해 기술한 러시아 심리학자의 이름을 따온 자이가르니크 효과는 수행이 잘 된 일보다는 미완성이거나 실수가 있었던 일들을 더 잘 기억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 효과는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만연할 때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심리학과 E.J. 마시캄포 부교수는 "충족되지 못한 목표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요하게 남아있다"고 말한다. 마시캄포 부교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이가르니크 효과를 얼마나 완화시키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목표와 해야 할 일들을 적게 하면 평균적으로 15가지의 다른 일들을 적는다"면서 "무의식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쇼핑계획에서부터 결혼시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과 목표들은 인지부하에 쌓인다. 마시캄포 부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쌓이는 생각과 목표들은 아주 쉽게 쌓여 불안과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유발한다.

인지부하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적 방법이 있다. 마시캄포 부교수는 "실제로 그 일을 처리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제로 그것을 완수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해가 되는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단순히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유익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시캄포 교수는 "일정을 미루는 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스스로에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8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생각해볼 거야'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어떤 계획이든 좋으니 일단 계획을 세워라

불확실성은 우리를 화나게 한다.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준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갖게 되면 비록 그것이 성과를 가져다줄 수 없는 헛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명확하게 하고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노이퍼트 교수는 "결혼식과 같은 중대한 계획에 있어서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계획은 가장 크고 복잡한 것이지만 결혼식은 차치하고라도, 간단한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 역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일부 사람들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3개월 앞의 일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내일의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이것이 어렵다면 오늘 오후를 계획해보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느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오늘의 저녁식사를 계획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축하해야 할 일이에요."

만약 당신이 계획을 일상적으로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훌륭한 조언이다. 지금의 상황과 스트레스는 전례 없는 일이다. 만약 당신이 스트레스를 해소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 그것 역시 일반적인 일이다.

"지금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만약 당신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미래를 위한 작은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보세요. 그 계획이 다시 바뀐다 해도 상관없어요."

목·양·칼·럼

백운영 목사
(필라 영생장로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될 때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될 때, 중국 우한이 중국의 정부차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 중국 당국의 기독교 탄압에 대한 죄의 심판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한국 교회에 주시는 경고다 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니 미국의 반신앙적인 동성애자와 기도금지, 말씀의 권위 무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추론하려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더 포괄적이어야 하고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최근 유럽의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Tom Wright 교수는 "하나님과 팬데믹" 이라는 책을 출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COVID19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말하면서 "Why(왜)" 라는 질문 대신에 "What(무엇)"이란 질문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왜 이런 대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재난 앞에서 교회와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을 때 새로운 시각들이 열리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새로운 유익을 주는 시각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안디옥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로마제국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세계 전역에 큰 기근이 닥치자 안디옥교회는 유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및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재난이지만 재난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재앙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에 더 많은 마음의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안보이던 담이 허물어지는 귀한 결과도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고 쓰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마주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어떤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한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다 보면 "왜"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큰 그림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찾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서 시작됩니다. 라이트 교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역사를 추론하고 정죄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싸매주는 사랑의 수고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말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 섬김이 쌓여갈 때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높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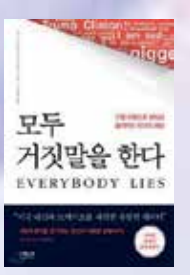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드,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 씩의 부상이 전달 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티븐슨 대비위츠 더퀘스트

침묵
엔도 슈사쿠 홍성사

말그릇
김윤나 카시오페아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리처드 탈러, 리더스북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 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